

Connect 360 성경공부

승리들과 수난들

사무엘하 공부

Made possible by your gifts to the Mary Hill Davis Offering® for Texas Missions
텍사스 선교를 위해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리 힐 데이비스 헌금으로 이루어진 성경공부교재입니다

<인도자 지침서>

도니 오벤샤인 (Donnie Auvenshine)

로비 배러트 (Robbie Barrett)

비비안 콘라드 (Vivian Conrad)

존 던컨 (John Duncan)

로니 & 리네이트 후드 (Ronnie & Renate Hood)

러스티 월튼 (Rusty Walton)

에릭 윅맨 (Eric Wickman)

패트릭 윌슨 (Patrick Wilson)



Baptist Way Press®

달라스, 텍사스

승리들과 수난들

판권소유 © : 2019 BAPTISTWAY PRESS ®

모든 권리 소유.

교회사역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복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출판물의 복제판은 간략한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면을 통한 허용 없이 매매되거나 유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ONNECT 360 ALL THE BIBLE FOR ALL OF LIFE® 에 대한 이 한국어 교재는 미 특허.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개역개정성경
, 1998 년에서 했습니다.

BAPTISTWAY PRESS® Leadership Team
총책임자,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David Hardage
부책임자,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Steve Vernon
부장, Great Commission Team: Delvin Atchison
출판사, BaptistWay Press®: Bob Billups
출판부장: Scott Stevens
영업부장: Stan Granberry

한국어 집필위원

승리들과 수난들

(1 과 ~ 10 과) 구홍락 (미들랜드한인침례교회)

(11 과 ~ 12 과) 최승오 (중앙침례교회)

(13 과, 부활절) 이석휘 (루이빌침례교회)

총편집 담당: 최승오 (중앙침례교회)

초판 : 2019 년 10 월

BAPTISTWAY PRESS®

Dallas, Texas

♣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각 장의 **학습계획** 주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쉽게 배울 수 있는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침의 순서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첫 번째 주제 '**삶과의 연결**'은 수업을 시작하여 공부할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 줄 것이다. 두 번째 주제 '**학습인도**'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세 번째 '**적용격려**'는 참가자들이 공부한 말씀을 삶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도와 줄 것이다.

수업을 시작할 때, 각 과의 첫 페이지나 '**수업계획**'이 있는 지면에 공부하게 될 날짜를 적는 훈련에 시간을 할애하라. 수업계획표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E-Mail 로 수업계획표를 보내어 언제 무슨 과를 공부하게 될 지를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당신이 교사 혹은 학생일 경우

1. 주중에 일찍 준비하라,
2. 공부할 내용을 개괄적으로 훑어 보라, 목차와 개요를 읽고, 공부할 각 단원의 짧은 요약물을 읽도록 하라. 각과가 어떻게 그 단원과 연관되어있는지 이해하며 각과를 끝까지 공부하도록 하라.
3. 각과에 해당되는 성경구절을 깊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라.(각 단원은 저자가 좋아하는 성경 번역본을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번역본을 사용하여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
4. 성경구절을 모두 읽고 난 후, 저자의 해석을 읽도록 하라. 그 해석은 여러분의 성경공부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
5. 각과의 보충설명들을 읽도록 하라. 그 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주며 많은 교훈을 줄 것이고, 묵상하며 적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6. 각과의 질문들을 스스로 답해보도록 노력하라. 좀더 깊은 생각과 적용을 하게 하며 성경공부 자체에 도움을 줄 것이다.

☞ 당신이 교사일 경우

1.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2. 첫 시간에는 각과마다의 학과일정을 언급하며 간단히 개요만을 설명한다. 4 페이지에 있는 목차와 각과마다의 첫 페이지에 학과일정을 적게 한다.
* 만일 당신의 반원들이 모두 이메일이 있다면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이메일로 보내라.
3. 각과마다 지침서 역할을 하는 **인도자 지침서**를 구입하라(한국어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교사용 교재 자료들은 분반공부에 실제적이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제공한다.

4. 학습공과와 내용들을 다 공부한 뒤에 인도자 지침서에 나오는 교사를 위한 제안을 사용해서 당신의 반원들을 인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취하고 응용하라.
5. 영어로 된 수업 보조용 프린트물들은 www.baptistwaypress.org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6. 그외 영어로 된 자료들에 대한 무료다운로드나 도서 구입문의는 1-866-249-1799 로 전화를 하거나 baptistway@texasbaptists.org 로 이메일을 하라.
7. 더 필요한 교사연구용 준비자료들은 1-866-249-1799 로 전화를 해서 PDF 파일로 받아 볼 수 있다. 전체 13 과 자료가 1 인용 5 불이고 5 명을 1 그룹으로 해서 20 불이다.
8. Baptist Standard 는 1 년 구독료 10 불이다. 온라인(www.baptiststandard.com) 으로 주문하거나 214-630-4571 로 전화해서 할 수 있다.

☞ 영어로 된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 교재들은 amazon.com/kindle 에서 킨들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계속 옆로드 중입니다).

☞ 영어로 된 오디오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 교재들로 일부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866-249-1799 로 전화하시거나 baptistway@texasbaptists.org 로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 및 편집 원칙

BaptistWay 출판사 책임자와의 합의하에 번역 및 편집은 필요에 따라 때론 문화적 차이에 의한 의역을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같은 성경적 교훈 아래서 고쳐 쓰거나 생략했음을 밝혀 둡니다. 이 원칙은 이전의 교재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했습니다.

인도자 지침서 저자들

에릭 위먼 (Eric Wickman wrote) 은 1~3 과 수업에 대한 "성경 주해"를 썼다. 에릭은 텍사스 주 벨튼에 있는 메리 하딘-베일러 대학의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방문 강사다. 그는 초대 교회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세인트루이스 대학에서 역사신학 학위를 받았다. 에릭은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3 명의 자녀가 있다. 그는 독서,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로비 배러트 (Robby Barrett) 는 1~3 과의 "수업 계획"을 작성했다. 그는 현재 텍사스 아마릴로 퍼스트 침례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사역한다. 그는 BaptistWay Press® 에서 수 많은 수업 계획안을 작성해왔다.

도니 오벤샤인 (Donnie Auvenshine) 은 4~7 과까지 "성경 주해"를 썼다. 오벤샤인 박사는 하워드 페인 대학의 기독교학 교수 및 학장이다. 그는 텍사스에 있는 침례교 대학교들에서 30 년 넘게 교편을 잡고 있다. 그는 텍사스 침례교회들에서 임시 목사, 초청 설교자, 성경 교사로 섬기고 있다.

패트릭 윌슨 (Patrick Wilson)은 이 4 과에서 7 과의 학습 공과와 그에 상응하는 인도자 지침서의 수업 계획을 썼다. 패트릭은 미주리 롤라에 있는 살렘 애비뉴 침례교회의 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윌슨 박사는 베일러 대학교 (학사.), 사우스웨스턴 침례교 신학 (M.A.Th. 와 Th.M)과 로즈돈 세미니얼(D.Min)를 나왔다. 텍사스 출신으로, 그는 이전에 오스틴과 달라스에서 목회를 했었다. 그는 목회 외에도 구약성서, 히브리어, 목회학 등의 신학 강좌를 가르쳤다. 패트릭은 미주리 롤라에 살고 있으며 그의 아내 미셸과 아들 조엘과 함께 살고 있다.

러스티 월튼 (Rusty Walton)은 8 과에서 11 까지 수업을 위한 "성경 주해"를 썼다. 월튼 박사는 루이지애나 주 배턴루지 출신으로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과 사우스웨스턴 침례교 신학교(M.Div.와 D. Min.) 출신이다. 그는 텍사스 신도들을 40 년 동안 목사로서 섬긴 후 은퇴했다. 그와 그의 아내 브렌다는 두 명의 자녀와 다섯 명의 손주가 있다. 그들은 텍사스주 콘로에 그들의 집을 짓는데, 그곳에서 월튼 박사는 콘로 경찰서의 채플린 목사로 일하고 있다. 월튼 박사는 텍사스 침례교회들의 전략적 임시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비비안 콘라드 (Vivian Conrad)는 8 과에서 11 과까지의 학습 공과와 그에 상응하는 인도자 지침서의 수업 계획을 작성했다. 아시아 선교사로 24 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온 비비안과 남편 존은 텍사스주 웨더포드의 클리어 포크 침례교회에서 음악 사역자로 활동했다. 비비안은 웨더포드 기독교 학교에서도 가르친다. 그녀는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교 (M.A.Th.)와 달라스

침례대학교 (B.A. 기독교 교육학)를 졸업했다. 다섯 명의 자녀를 둔 그녀와 존은 11 명의 손주가 있다.

존 던컨 (John Duncan) 은 11 과에서 13 과까지의 수업과 부활절 수업을 위해 "성경 주해"를 썼다. 던컨 박사는 텍사스주 Horseshoe Bay 에 있는 교회의 협동 목사이다. 그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커비-롤링 연구소를 거쳐 오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텍사스 포트워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침례교 신학교에서 D. Min. 을 취득했다. 존은 주디와 결혼해서, 결혼한 딸 셋, 그리고 손주 셋이 있다. 그는 또한 NBA 의 댈러스 매버릭스의 열렬한 농구 팬이다.

로니 & 리네이트 후드 (Ronnie & Renate Hood) 는 12 과에서 13 과, 그리고 부활절 수업까지의 학습 공과와 그에 상응하는 인도자 지침서의 수업 계획을 작성했다. 로니 W 박사 후드 2 세는 텍사스 주 템플 캐니언 크릭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다. 그는 앨라배마주 버밍엄에 있는 샘포드 대학을 졸업했다. 리네이트 후드 박사는 텍사스 주 벨튼의 메리 하딘-베일러 대학의 기독교학 교수(신약성서와 그리스어)이다. 그녀는 네덜란드에서 의학 학위를 땀다. 후드 부부는 뉴올리언즈 침례교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로니는 이곳에서 M. Div, Th.M., 그리고 Ph.D.(교회사) 학위를 받았고, 리네이트는 M.Div. 와 Ph.D 를 받았다.

승리들과 수난들 사무엘하 공부

페이지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3
인도자 지침서 저자들	5

수업일

다윗의 승리들 (사무엘하 1 장-10 장)

제 1 과 _____	기쁘고도 슬픈 승리	9
	사무엘하 1; 2:1-7	
제 2 과 _____	왕국 통합	17
	사무엘하 5 장	
제 3 과 _____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예배	24
	사무엘하 6 장	
제 4 과 _____	하나님이 영원한 보좌를 세우시다	32
	사무엘하 7 장	
제 5 과 _____	놀라운 승리의 연속	40
	사무엘하 8 장	

다윗의 수난들 (사무엘하 11 장-24 장)

제 6 과 _____	정욕과 살인	47
	사무엘하 11 장	
제 7 과 _____	당신이 그 사람이라!	54
	사무엘하 12:1-23	
제 8 과 _____	정욕과 살인, 2 부	62
	사무엘하 13:1-33	
제 9 과 _____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하다	70
	사무엘하 15:1-30	
제 10 과 _____	저주와 기만을 당하다	79
	사무엘하 16 장	

제 11 과 _____	잃은 아들을 애도하다87
	사무엘하 18 장
제 12 과 _____	반역이 실패하다95
	사무엘하 20 장
제 13 과 _____	심판과 희망103
	사무엘하 24 장
부활절 _____	가서 말하라111
	마태복음 28 장

제 1 과	기쁘고도 슬픈 승리
핵심본문 삼하 1; 2:1-7 배경 삼하 1; 2:1-7	학습주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로 인해 왕으로서의 그의 지위를 확립하게 되었다. 탐구 질문 왜 다윗은 그의 원수의 패배를 슬퍼했는가? 학습목표 원수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타고난 가치를 이해한다.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사무엘상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군주정치의 개막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사무엘상의 초반에 의하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선지자 사무엘이 지도자로서 다스렸다. 하지만, 사무엘이 늙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아들들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그에게 왕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삼상 8:1-9). 사무엘은 어쩔수 없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다. 사울은 초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 자신의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었다 (10:1, 15:1-10).

따라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임명하셨다 (16:6-13). 그는 사울을 위한 큰 용사가 되었지만, 사울로부터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다. 다윗은 또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졌으며 (18:1)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하였다 (18:20-28). 다윗을 질시한 사울은 그를 죽이려했다 (18:6-9).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달아났으며 두 사람은 적이 되었다 (21:10). 사울은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전사했다 (31:1-7).

한 아말렉인이 다윗에게 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통보했다 (사무엘하 1:1-10).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숙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신 왕을 죽인 그 사람을 죽이도록 명령했다 (1:11-16). 그리고 난후 다윗은 사울과 자신의 친구인 요나단을 위해 애도했다 (1:1-27).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아직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다 (1:1-4).

본문 해석

사울의 부고를 듣다 (1:1-5)

1:1. 사울의 죽음이 처음 기록된 것은 사무엘상 31 장이다. 아말렉은 유다 남쪽의 사막에 위치한 부족이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오랜 세월 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으며, 두 나라는 몇 백년 동안 격렬한 전쟁을 해왔다 (출애굽기 17:14, 신명기 25:17-19, 삼상 14:48, 15).

1:2. 전령은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흙을 덮어쓴 상태로 도착했는데 이는 슬픔이나 괴로움의 표현이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신빙성있게 보이기 위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1:3-4. 다윗은 비록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땅의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지만 (1 절, 삼상 30:1-31), 전령에게 전쟁의 소식을 급하게 물어본 것을 고려해 볼때에 그가 여전히 충성된 이스라엘 사람임을 알수 있다. 사울과의 불화로 인한 단절은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 중에 도망을 갔다는 전령의 첫 번째 보고는 사무엘상 31:1 의 기록과 동일하다. 따라서, 그가 전쟁에서 싸우지는 않았는 지 모르지만, 그 전쟁을 목격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만을 보고했고, 사울의 나머지 두 아들인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31:2).

1:5. 다윗은 전령에게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다. 다윗이 전령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의심했는 지의 여부는 알수 없다. 전령이 아말렉 사람이었다는 점이 (1:8), 의심을 일으켰을 수도 있지만, 확실치는 않다.

이야기의 전개 (1:6-16)

1:6-9. 전령의 소식은 사무엘상 31:1-7 의 내용과 모순된다. 아말렉 사람은 병거와 기병이 사울을 추격했다고 말했지만, 사무엘상의 기록에 의하면, 활쏘는 자가 사울에게 먼저 부상을 입혔다. 전령은 또한 사울이 무기를 든 자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애원한 것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사무엘상에 의하면 사울이 자결을 하지만, 전령은 그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했다.

1:10. 전령은 곧 자신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 왕의 상징인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다. 아마도 그는 왕이 될 다윗이 자신에게 상을 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사울의 죽음에 관하여 두 개의 다른 이야기가 있는 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 가지 가능한 추측은 전쟁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전쟁의 난리 중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하여 정확한 것들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사무엘상하의 저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령이 자신이 사울을 죽인 영웅처럼 스스로를 묘사하고 다윗에게 왕의 상징물들을 가져온 것으로 볼 때에 다윗에게서 상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윗은 전령을 기회주의자로 생각했음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 엿볼수 있다 (삼하 4:10).

1:11-12.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애도를 표하는 전통적 방식대로 그들의 옷을 찢었다. 그들은 사울 왕과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동족인 이스라엘의 패배를 슬퍼한 것이다. 다시 한번 다윗은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심 뿐 아니라, 그가 왕이 되는 데 방해가 되었을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충심을 드러냈다.

1:13. 다윗은 전령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그에게 정체를 밝히라고 말했다. 전령은 다윗에게 자신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아마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그를 의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말렉인들을 속이기를 잘 하는 사람들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1:14. 아말렉 사람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 지를 이해하지 못 했지만, 다윗은 달랐다. 그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을 받았기에 마땅히 존경해야 한다고 믿었다. 다윗이나 전령 그 누구도 사울을 죽일 권한이 없다 (삼상 24:1-15, 26:9).

1:15-16. 다윗은 전령의 죄를 물어 그를 사형시켰다. 다시 한번 다윗은 사울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그에게 충성심을 보여준 것이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도 (1:17-27)

1:17-18. 다윗은 그가 속한 유다 족속에게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도록 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야살의 책에 다윗의 애도가 기록되었다 (여호수아 10:12-13 에도 야살의 책이 언급되어 있다.)

1:19-20.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다섯 개 주도 중 두 개의 도시이다. 그들이 사울의 죽음을 알게 된다면 축하하며, 하나님이 기름부으신 왕의 죽음을 놀릴 것이다.

1:21. 사울은 길보아에서 죽었다. 그곳에 식물이 자라는 것은 마치 사울의 죽음을 조롱하는 것과도 같다.

1:22.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을 노래했다. 그들은 용기가 없어서 죽은 것이 결코 아니다.

1:23-25. 다윗의 성공들과 비교해 볼때에 사울의 단점들을 기억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이 사울의 좋은 점들을 기억하기 원했다.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좋은 아버지였다. 또한 사울은 요나단과 함께 집정 초기에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이스라엘에 번영을 가져왔다 (삼상 13-14).

1:26-27. 이 구절들은 이 애가에서 가장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요나단과는 특별한 우정을 나눈 친구였다 (삼상 18:1). 다윗의 애도는 의무감이나 충성심을 넘어서 사랑하는 친구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심적인 슬픔을 드러낸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 (2:1-7)

2:1. 다윗이 유다로 돌아온 사건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 왕이 되고자 하는 의도이다. 하지만,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유다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했다. 따라서, 다윗의 유다로의 귀향은 다윗의 야망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의 결과이다.

2:2-3. 다윗은 두 아내와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유다로 돌아왔다. 이는 곧 그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다에 영구적으로 머물 계획으로 온 것이다.

2:4a. 다윗은 스스로를 왕으로 선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인식한 유다의 주민들이 다윗에게 기름부어 왕으로 삼았다. 기름부음의 의식은 달콤한 기름을 머리 위에 붓는 것이다.

2:4b-7. 남쪽의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북쪽의 지파들은 달랐다. 다윗은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에게 상을 내림으로 북쪽의 지파들에게 사울을 향한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선언했다 (2:7).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신중하게 행동했는데, 이는 사울과 그의 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에게 충성을 다짐한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였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에 의해 잠시 동안 북쪽 지파들의 왕이 되었다 (2:8-11).

핵심 의미

“우리 사장은 바보야!”

“내 이웃은 무례해!”

“정치인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어!”

이러한 표현들은 화가 났을 때에 사람들이 내뱉는 말들이다. 분노 자체는 건강한 감정이다. 하지만, 때로 분노가 미움으로 변할 때에 우리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긴다. 다윗이 사울의 원수였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원수가 될 수 있다. 원수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종종 우리는 원수들을 비방해서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로 취급하려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다윗은 사울의 원수가 되었다. 분명 다윗은 사울이 그에게 한 행동들로 인해 좌절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로서의 사울의 생명의 가치를 한번도 경시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부으셨다. 만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면, 다윗은 자신도 사울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접했을 때에, 다윗은 기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더 이상 범죄자처럼 숨어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왕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의 원수들에게 나쁜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기뻐하며 그런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해도 마땅하다라고 말하기 쉽다. 하지만, 다윗의 사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원수들도 선한 구석이 있는 인간들임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원수들을

사랑해야 한다 (마태복음 5:44). 사울이 때때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요나단과 같은 자녀를 기른 것을 볼때에 완전히 나쁜 사람만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원수들에게서 좋은 면들을 발견하고,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식할 수 있는가?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수업을 시작하면서 당신이 경험한 슬프고도 기쁜 순간이 있으면 함께 나누라. 어쩌면 그것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잃었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사건일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이 말하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취한다는 사실은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잠시 동안이라도 그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슬픔입니다."*
2. *"다윗에 대한 오늘의 학습은 모든 신자들이 원수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의 타고난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성경 공부 가이드

3. 오늘의 공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요를 제시하라:
 - 다윗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다 (1:1-16)
 - 다윗이 그의 슬픔을 표출하다 (1:17-27)
 - 다윗이 유다로 귀향하다 (2:1-7)
4. 학생들 중 한 사람에게 사무엘하의 시작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라. 사울과 다윗 사이의 반복적인 애증의 관계에 주목하도록 하라. 특별히, 다윗은 모든 면에서 왕인 사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음을 상기시키라.
5. 누군가에게 사무엘하 1:1-16 를 읽도록 한 후,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 모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라:

- 전령의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가? 긍정 또는 부정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전령의 겉모습이 주는 중요성은 무엇인가?
 - 전령의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사무엘하 31 장의 기록과 어떻게 다른가?
 - 다윗과 추종자들의 사울의 죽음에 대한 반응이 놀랍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왜 다윗은 보고를 들은 후에 전령을 죽이도록 했는가? 당신은 다윗의 결정에 동의하는가?
6. 다윗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때에 다윗이 수 차례 그를 죽이려했던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게 된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7. 사무엘하 1:17-27 을 크게 읽으면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칭송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들이나 구절들을 찾아보게 하라. 한 학생에게 발견된 표현들을 칠판에 쓰게 하라. 이 구절들을 다시 읽으면서 이번에는 다윗의 절망감을 표현한 단어와 표현들을 찾아보게 하라. 한 두 사람에게 이 구절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게 하라.
8. 한 사람에게 2:1-7 을 크게 읽도록 한후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하면서 간단한 강의를 하라:
- 다윗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주의깊게 행했다.
 - 다윗은 기름부음을 받았다.
 - 다윗은 사울의 시체를 돌본 사람들을 축복했다.

적용

9. “당신은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에 나쁜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가? 또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좋은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슬픔과 기쁨이 함께 교차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은가?” 이 질문들에 대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라.

10. *학습 공과*의 “질문들”을 보고 함께 토의하라.

11. 나에게 악을 도모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슬프고도 기쁜 일임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키라. *학습 공과*의 “나의 원수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함께 읽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에게 해를 도모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며 모임을 마치라.

[끝]

제 2 과	왕국 통합
핵심본문 삼하 5 배경 삼하 5	학습주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정복한후 블레셋을 참패시켰다. 탐구 질문 다윗이 왕국을 통일시킬 수 있었던 성공의 근원이 무엇인가? 학습목표 내가 누리는 모든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인식한다.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사울의 남은 가족들과 전쟁을 치루고 (사무엘하 3:1) 이스보셋마저 암살한 (삼하 4)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 그 후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여부스 족속을 공격했다. 여부스 사람들은 그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자랑했지만, 다윗은 그 성을 점령하고 만다. 그 후로, 예루살렘은 다윗 성으로 불리게 되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다윗의 권력과 영향력은 점점 강성해 갔다. 두로의 사신들이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데리고 자신에게 와서 그를 위해 왕궁을 지었을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았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에게 많은 아들들을 주심으로 축복하셨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의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숙적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블레셋인들은 여전히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블레셋을 공격해야 하는 지의 여부를 물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바알브라심에서 블레셋인들을 공격하라고 하셨고,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다. 그후 하나님은 다윗에게 뽕나무 수풀 맞은 편에서 블레셋을 기습하되 후방에서 공격하도록 지시하셨고, 이 전쟁은 또 하나의 놀라운 승리였다. 마침내, 사무엘하 5 장은 다윗이 블레셋인들을 “게바에서 게셀까지” 패배시켰다고 기록한다. 게셀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에 위치한 도시임을 감안해 볼때에, 하나님이 마침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셔서 블레셋인들을 이스라엘 밖으로 완전히 몰아 내었음을 볼수있다.

본문 해석

왕국이 통일되다 (5:1-3)

5:1.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은 다윗에게 나아와 그들이 다윗과 같은 “골육”임을 선언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들은 오랫동안 서로 좋지 않은 관계 속에 있었다. 유다의 왕인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가 열두 지파 전체의 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5:2. “출입하다”라는 구절은 전쟁에서 군인의 역할을 묘사한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울이 왕이었을 당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다윗 때문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삼상 18:13-16).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나 주권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기록은 없다. 하지만, 다윗이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이러한 역할을 의미한다 (16:13).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전체에게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 지 알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목자와 주권자로 부른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다윗의 역할은 단순히 주권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목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았다. 이전에 양들을 돌보았던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을 돌보는 목자로 선택된 것이다.

5:3.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기름부음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한 왕 아래 통합되게 되었다. 그들이 다윗과 한 언약은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단순히 인간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적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다 (5:4-12)

5:4-5. 비록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지만, 그의 수도는 여전히 헤브론에 위치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예루살렘을 아직 점령하지 않았다 (5:7).

5:6. 여부스 거주민들은 예루살렘 안팎으로 오랫동안 거주해 왔다 (창세기 10:16).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에 여부스인들을 몰아내지 못했다 (여호수아 15:63, 사사기 1:21). “왕과 그의 부하들”이란 구절은 다윗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만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왔음을 시사한다. 이 부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성된 큰 군대가 아니었던 것이다. 여부스 사람들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다윗을 물리칠 수 있다고 놀렸다. 예루살렘 성은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방어에 유리했다.

5:7. 다윗은 여부스 사람들의 자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참패시켰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속했다. 이 성은 그의 부하들에 의해 점령되어 그의 소유가 되었기에 “다윗 성”이라 불리게 된다.

5:8. 이 구절은 다윗이 아주 적은 무리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수로를 타고 성으로 올라갔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쳤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는 6 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한다. 성경은 다윗이 무너뜨린 예루살렘을 지키던 자들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과 같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5:9-10. 밀로는 성 안에 있던 흙으로 만든 보루를 의미하는 것 같다. 다윗이 비록 적은 무리로 지혜로운 전략을 세워 성에 침투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했으나 (5:8), 성경의 저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성공할 수 있었으며, 다윗의 통치 기간에 예루살렘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갔다.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 역대상 11:4-9 에서도 다윗의 강성함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은 예루살렘의 정복 뿐만이 아니다. 10 절 말씀은 사무엘상 16 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안전한 성을 근거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의 결론과도 같다. 10 절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져 갔다고 말한다. 이는 곧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건 뿐 아니라,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5:11. 두로는 페니키아의 수도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다. 백향목은 다윗의 시대에 가장 값진 나무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두로 근처의 대부분의 백향목들은 이미 벌목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백향목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 지를 잘 보여주는 동시에, 다윗이 얼마나 높게 여겨졌는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윗과 솔로몬은 히람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 (왕상 5:15-26).

5:12. 진실로 하나님이 다윗의 성공의 근원이 되신다. 이 구절은 다윗도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다윗의 아내들과 첩들 (5:13-16)

5:13-16. 여기에 기록된 아내들과 아들들의 목록은 사무엘하 3:2-5 과 같다. 다만, 여기에는 다윗의 첩들에 대한 기록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렇게 첩을 두는 것은 당시 왕들에게는 관행이었다. 또한, 당시 결혼은 종종 두 나라 간의 평화의 조약의 일부였다. 따라서, 더 많은 아내와 첩들을 갖게 되는 것은 다윗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윗이 신명기 17:17 의 명령을 어겼는 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신명기의 말씀이 정확하게 몇명의 아내를 두어도 되는 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의 비도덕적인 행위들에 대해 죄를 지적했다 (삼하 11-12). 하지만, 아내가 많은 문제로 그를 정죄하지 않은 것을 고려할때, 당시 기준으로 도에 지나치게 아내를 많이 둔 것은 아닌 것 같다.

블레셋의 문제 (5:17-25)

5:17-19.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썽이 되었다. 요새로 돌아온 다윗의 결정은 신중하면서도 실용적인 결단이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를 나타냈다.

5:20. 다윗은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드렸다.

5:21. 비록 블레셋의 신들은 거짓된 것이었으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다.

5:22-24. 블레셋은 또 다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를 일으킨다.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의 지시를 구한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매우 구체적인 전략을 주시는 데, 곧 블레셋을 후방에서 공격하라는 지시였다. 하나님은 다윗 앞서 가셔서 블레셋을 치셨다. 다윗은 분명 위대한 왕이었지만, 위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

5:25.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마침내 블레셋 땅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는 사울의 시대에는 이루지 못한 업적이다. 비록 이 구절이 사울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지만,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확연하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블레셋을 물리쳤다.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

핵심 의미

운동 선수들이 홈런을 치거나 터치다운을 했을 때, 손가락을 하늘을 향해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보곤한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은 누가 이기든 상관치 않아”라고 경멸조로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능과 훈련을 겸비한 운동 선수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모습은 너무도 소중하다.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영광을 받으셔야 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세 개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 나는 학사 이상 과정에서 12 년을 공부를 했으며, 이러한 학위들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러한 학위들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에게 교수들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도 주셨다. 때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 하나님은 또한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 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큰 것들을 허락하셨다. 나에게 다른 이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나는 현재 기독교 대학의 교수로 일하고 있다. 물론 다윗처럼 나도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내 안에 역사하셨기에 오늘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학생들에게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에 무슨 생각이 나는 지 물어보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간절히 기다리는 것들을 생각할 것이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까지의 날짜, 차 안에서의 기나긴 여행, 휴가 시작할 때까지의 날짜, 생일을 기다림, 학기가 끝나는 날짜, 새로운 직장의 시작, 등등이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이끈 절정에 해당하는 경험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다윗에게 매우 긴 여정이었으며, 그는 아마 종종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2.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왕국이 다윗의 통치 아래 하나가 되고, 유명했던 도시가 무너지며, 영화로운 집이 세워지고, 군대가 패배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왕의 직무는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가이드

3. 사무엘하 5:1-5 을 낭독하라. 학습 공과와 티칭 가이드, 주석들, 그리고 다른 가르침에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가지고 본문의 개관을 연구하고 제시하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표에 의해서 어떻게 다윗을 준비시켜 오셨는지에 관해 주목하라.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하나님은 항상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는 항상 그분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까? 당신의 대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누군가에게 사무엘하 5:6-10 을 크게 읽도록 하라. 학생들에게 다음의 질문들을 토의하게 하라.
 - 왜 여부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 여부스 사람들은 그들의 자신감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 왜 다윗은 그 성을 점령하기 원했는가?
 - 이 구절은 삼상 17 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한 것과 어떻게 흡사한가?
 - 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는가?
 - 여부스 사람들의 실수는 무엇인가?*"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면 그 어떤 적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

5. 사무엘하 5:11-16 을 낭독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들의 성경을 보게 하라. 이 구절들은 다윗을 향한 집, 곧 왕궁의 선물에 관한 말씀이다. 12 절에 주목하게 한 후 질문하라: "두로의 왕이 보낸 이 선물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이제 13 절을 읽은 후 질문하라: "다윗이 자신의 통치를 굳히기 위해서 적절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행위를 한 것이 있는가? 왜 그러한가?" 학생들에게 신명기 17:17 을 읽게 한후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발걸음을 어떻게 떼고 있는 지를 살펴보라.
6. 사무엘하 5:17-25 의 말씀을 보라. *학습 공과*에 따르면, 이 구절의 말씀들은 연대기적인 순서가 아니다. 다윗이 사울의 계승자들과 싸울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자기들의 동지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 왕으로서 다윗은 그들의 적이 된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을 토의하라.
 - 여기에 기록된 다윗의 정복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아니면 자신을 신뢰했는가?
 -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 다윗은 자신의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적용

7. 학생들에게 *학습 공과*의 참고 1 의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읽도록 하라. 여기에 제시된 질문들에 대답을 해 보도록 하라.
8. *학습 공과*의 다음 문장들을 크게 읽으라: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만 그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이다." "*사무엘하 5 장에서 이러한 진실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9. 이번 주에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의 원리들을 제시하라:
 - 내가 성공을 원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 내가 성공을 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다.
 - 내가 성공을 누릴 때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10. 기도로 마치라. [끝]

제 3 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예배
핵심본문 삼하 6 배경 삼하 6	학습주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분의 거룩함의 현현이었으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예배를 가능케 했다. 탐구 질문 나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있는가? 학습목표 내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한다.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사무엘상 16 장에서 사무엘하 5 장을 통해 우리는 어린 목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읽게 된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셨으며 (삼하 5:6-9),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내어 쫓게 하셨다 (5:17-25).

그후 다윗은 더 평화로운 일들에 관심을 쏟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정치와 예배의 중심지가 되기를 원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았다 (삼상 4:1-11).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두었다. 하나님은 다곤의 신상을 넘어뜨리시고 언약궤가 있던 아스돗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질병의 재앙을 보내셨다 (삼상 5). 블레셋 사람들은 마침내 언약궤를 금과 함께 기럃여아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 주었다. 아마 언약궤는 다윗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오기 이전에 이곳에 계속 머물렀을 것이다.

다윗은 음악을 크게 연주하며 행렬을 이끌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장들 중 하나인 웃사를 죽이셨는데, 이는 소가 끌던 수레가 흔들릴 때에 웃사가 언약궤가 흔들리지 않도록 손으로 만졌기 때문이다.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궤를 두려워하여 삼개월 동안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언약궤가 있던 가드 사람 오벥에돔의 집에 큰 복을 주셨다. 다윗은 하나님이 오벥에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듣고 언약궤를 다시 그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져 오게 된다. 그는 다시 음악과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장엄한 행렬을 진행했다. 마침내 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 와서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과 경축하였다.

본문 해석

언약궤의 호송 (6:1-5)

6:1.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 다윗이 모집한 큰 군대는 사실상 불필요했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볼때에 이미 블레셋을 패배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큰 군대를 거느린 것은 언약궤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그것을 가져오는 사건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6:2. 다윗은 언약궤를 바알레유다로부터 가져왔는데 이는 기랴여아림의 또 다른 이름이다 (여호수아 15:9). 사무엘상 7:1 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돌려 준 이후로 이곳에 안치되어 있었다 (삼상 6).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공식적인 이름인 “여호와 (야훼)”가 이곳에서 사용되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구절은 천상의 군대들을 거느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그룹들은 일단의 천사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고대 신화에 나오는 독수리의 머리와 날개에 사자의 몸통을 가진 짐승과 같이 여러 동물들이 합체된 모양이었다. 에스겔 1:5-14 은 그룹들의 모습을 잘 묘사해 준다 (에스겔 10:15, 20 에 그룹들이 다시 언급된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 역할을 하는 움직이는 상자와 같다.

6:3. 세속적인 용도로 쓰인 낡은 수레 대신에 새 수레를 사용했는데 이는 궤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람들은 기랴여아림의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부터 궤의 호송을 시작하였다 (여호수아 18:14-15).

6:4-5. 아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렬에 다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의 대표가 참여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는 곧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이 동일한 한분 하나님을 함께 경배한다는 사실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 결속시켰다. 축하 행렬에는 수 많은 악기들이 동원되었다. 이러한 광경은 아마 오늘날 7 월 4 일 미국의 독립 기념일 행렬과 비슷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예배에 궤가 더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됨을 기뻐했다.

웃사의 죽음 (6:6-9)

6:6-7. 웃사의 죽음은 본문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웃사는 언약궤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좋은 일을 했을 뿐이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행동한 사람을 불공평하게 징계하시는 냉정한 분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율법 아래 있었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언약궤는 오직 정결 예식을 거친 제사장들만이 만질 수 있었다. 이 거룩하고 신성한 물건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5 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었듯이 이 성물의 능력과 권위를 모른다는 것이 핑계가 될수 없었다. 비록 웃사가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부주의했으며 자신이 호송하고 있는 성물을 적절히 대하지 못했다. 그는 궤의 신성한 속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6:8. 웃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만한 것으로, 우리가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다. 선한 일을 하려던 사람이 죽었을 때에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다윗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그의 감정은 단순히 분노에 그치지 않았다.

6:9. 다윗은 웃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우리는 결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웃사의 죽음을 통해 배울수 있듯이 아무리 기쁜 축제 속에서도 신성을 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 곧 경외의 대상이 되셔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기억해야 하지만, 그 분은 또한 능력이 많으시고, 거룩하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 분이 세우신 법을 존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은 다윗과 성에 큰 축복이다. 하지만, 기쁨의 행렬 가운데 적어도 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잊었던 것 같다. 웃사의 죽음은 다윗에게 이러한 교훈을 진지하게 심어 주었다.

축하와 예배 (6:10-15)

6:10-11. 다윗은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에 그것을 두었고, 하나님은 그의 집을 축복하셨다. 오벰에돔은 외국인으로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이었다. 오벰에돔은 비록 블레셋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다. 하나님은 옷사를 보복의 행위로 벌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궤가 축복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먼저 궤가 합당한 예우를 받기 원하셨다. 하지만, 옷사나 사무엘상 5 장의 블레셋인들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6:12. 오벰에돔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인해 다윗은 궤 자체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오기로 결정하게 된다.

6:13-15. 다윗의 행렬은 이전처럼 축제의 분위기로 무르익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궤에 대한 대단한 경외심을 나타냈다. 여섯 발짝을 뿔 때마다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축제와 예배의 행렬이 이어졌다. 베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 다윗은 아주 가볍게 옷을 입었다. (미갈의 조롱을 보라—삼하 6:16-23).

6:16. 다윗의 첫째 부인인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옷과 행위에 불쾌감을 느꼈으며, 후에 20-23 절의 말을 하게 된다.

6:17-19. 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에 따라 그것을 장막 안에 들였다. 더 많은 희생의 제물들이 드려졌으며, 행렬 때 있었던 예배의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다윗은 두 종류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 곧 번제와 화목제이다. 번제는 짐승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화목제는 짐승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후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고기를 축제 가운데 나누어 먹었다. 이러한 축제의 한 부분으로 다윗은 또한 참석한 이들에게 평상시 부유한 자들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값비싼 음식들을 나누어 주었다. 예배와 축제의 분위기가 지속되었다.

6:20. 미갈은 다윗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면서 왕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조롱했다 (6:16). 그녀는 다윗이 왕의 지위에 합당하게 근엄한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춤추는 무희처럼 행동함으로 다윗 자신 뿐 아니라, 가문 전체에 수치를 가져왔다고 생각했다.

6:21-22. 다윗은 미갈에게 그의 행동이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겸손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은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의 계집종”)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다윗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강조했다.

6:23.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 되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임신이 되지 않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구절은 왕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미갈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강조한다. 비록 왕의 위엄에 어긋난 듯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다윗의 생각이 옳았다.

핵심 의미

매 주일마다 같은 일들이 반복된다. 일어나서 아이들과 싸워가며 교회에 갈 준비를 시킨다. 서둘러 아이들에게 아침을 먹이고, 나도 급히 옷을 갈아입은 후 예배 시간에 맞추어 문을 나선다. 교회에 도착하면 지칠대로 지쳐서 예배 시작 하기 전 겨우 몇 분정도 숨돌릴 틈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기쁘지만, 나 자신을 온전히 예배에 몰입시키는 것이 언제나 쉽지만은 않다. 예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드리는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웃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진지하게 예배하기 원한다면, 그 순간을 위해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경의를 표하며 다가서야 한다. 이러한 준비에는 예배 전날 일찍 잠자리에 들며, 다음날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 것도 포함된다. 하나님께 일요일의 한 시간만을 드리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예배의 시간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이처럼 준비하는 태도로 예배에 임한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예배에 몰입하여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심사들을 다 내려 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참된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될 것이다. 이때 비로소 예배는 단순히 해야 할 목록 중 하나를 해결하고 분주하게 일요일의 아침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된다.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우리가 지침을 따르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서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진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지침을 따르지 않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 예측해 보라:

- 텐트 치기
- 케이크 만들기
- 수술 후 재활
- 타이어 교체
- 새로운 주소로 운전해 가기
- 리서치 페이퍼 작성
- 약 복용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때의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때로 이 결과들은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 가이드

2. 사무엘하 6:1-11 을 읽으라. 자신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텔레비전 대담자로 소개하라. 그리고, 미리 준비시킨 두 명의 반원들을 다윗 왕과 웃사로 소개하라.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라이브 인터뷰를 시행하라. (참여하는 두 사람에게 미리 질문들을 주고 연습할 시간을 주라.)[이과의 인터뷰 대화 내용은 Teaching Resource 를 참고하라.

www.baptistwaypress.org].

- 다윗 왕, 당신은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결정을 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했나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 웃사, 당신은 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궤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궤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도요?
-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자는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 다윗 왕, 왜 그토록 많은 악기들을 동원했나요? 파티라도 하려고 했나요?

- 웃사, 왜 수레가 흔들려서 언약궤가 넘어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나요? 궤를 붙잡았을 때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한 것입니까?
 - 다윗 왕, 이 일은 분명 당신의 삶에 좋지 않은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웃사가 죽은 후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그리고, 언약궤를 어떻게 했나요?
3. 학생들에게 사무엘하 6:12-15 을 낭독하게 한 후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하라:
-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로 인해 징계를 받았는데 왜 오벥에돔의 가정은 언약궤 때문에 복을 받았는가? (사무엘상 5)*
 - *다윗 왕이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에 처음과 다르게 한 것은 무엇인가?*
 - *다윗이 기뻐하며 예배를 드린 것이 왜 중요한가?*
4. 자원하는 사람에게 사무엘하 6:16-23 을 크게 읽도록 부탁하라. 이 구절들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후, 영의 자유함 가운데 예배를 드린 다윗과, 그러한 예배를 비웃고 조롱한 거만한 미갈을 대조하라.
5. 예배(*worship*)라는 단어를 칠판에 수직으로 적으라. 학생들에게 다윗의 진정한 예배의 태도를 잘 나타내는 단어들을 worship 의 각 글자를 이용해서 찾아보도록 하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W – willing (자원함)
 - O – offering (드림)
 - R – rejoicing (기뻐함)
 - S – sincere (진지함)
 - H – holy (거룩함)
 - I – involved (참여함)
 - P – pure (순결함)

적용

6. *학습 공과*의 다음 문구를 인용하라. “이 과에서의 다윗의 행동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올바른 방법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재앙을 가져 올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학생들에게 *학습 공과*의 “질문들”을 읽어보고 1-4 번의 질문들에 대답해 보게 하라.

7. 질문하라.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이것은 다윗에게는 축복을, 웃사에게는 죽음을, 그리고 미갈에게는 질투를 주었다. *(언약궤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8. 학생들에게 다음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라. *“당신은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합니까? 당신이 드리는 예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맹목적인 제사, 기쁨의 춤, 영혼을 담은 찬양, 강력한 설교,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 아니면 은밀한 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로 마치라.

[끝]

제 4 과	하나님이 영원한 보좌를 세우시다
핵심본문 삼하 7 배경 삼하 7	학습주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하신 후 그의 나라의 영원한 왕좌를 세워주셨다. 탐구 질문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어떻게 응답하였는가? 학습목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찬양과 섬김으로 응답한다.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여러 가지 면에서 사무엘하 7 장은 사무엘상하 전체의 중심이 되는 장이다. 이 장은 “네 (다윗)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삼하 7:16)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다. 나머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등장하기 이전에 선지자는 사울 왕의 후계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임을 예언했다 (삼상 13-14). 저자는 사무엘상 13 장부터 사무엘하 1 장의 내용을 통해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성장을 드라마틱하게 대조한다.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족속은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삼하 2:1-4). 다윗은 유다 족속을 7 년 반 동안 통치했다 (삼하 5:5). 그 후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아 33 년 동안을 다스렸다 (삼하 5:1-5).

다윗은 몇 가지 핵심적인 조치들을 통해 그의 왕국을 굳건히 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았다 (삼하 6:6-16). 이러한 결정은 초기

미국의 지도자들이 특정한 주가 아닌 컬럼비아 특별 지구를 나라의 수도로 삼은 것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은 후에 “다윗 성”이라고 불리게 된다 (삼하 5:9).

다윗은 먼저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함으로 그의 왕국의 국경을 안전하게 지켰다 (삼하 5:17-25). 마지막으로, 다윗은 기랴여아림으로부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삼하 6).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라고 묘사되었다 (시편 48:1, 8). 예루살렘으로 궤를 가져오는 일은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의 국가적 역사와 전통을 다윗과 그의 왕국에 긴밀히 연결해 준다. 예루살렘은 국가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그 어떤 도시 보다는 더 중요한 위치를 지녀왔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은 사무엘하 7 장에서 전개될 중요한 이야기의 준비 과정이 된다.

본문 해석

여호와를 위한 집 (7:1-11 전반)

7:1-3. 다윗은 두로의 왕 히람이 보낸 백향목의 선물로 지은 궁전에 거하고 있었지만 (삼하 5:11),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짓기 원했다. 그는 나단에게 처음부터 언약궤를 모시는 역할을 했던 이동 장막 대신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출 40:3). 그리고 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했다.

7:4-7.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한 말은 잘못된 것이었다. 선지자로서 나단은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해야 했다 (신명기 18:17-20).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는 실망스러운 것이었고, 나단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여호와와는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다윗을 향한 특별한 축복의 선포를 주셨다.

5-7 절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나단에게 그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도 성전 건축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셨다. 사무엘하를 연구하는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의 말씀이 “반-성전”적인 것이며 영구적인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해 올수 있는 신앙의 제도화의

위험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신명기 12 장에서 발견되는 택하신 성전에 대한 강조에 비추어 볼때에 이 구절이 그러한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 12:4-7). 후대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신뢰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사야 1:11-17; 예레미야 7; 에스겔 8-9).

7:8-11 전반.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다. 대신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 그 분이 계획하신 일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은 먼저 다윗을 위해 베푸신 그분의 은혜를 말씀하셨으며, 또한 미래에 하실 일들을 알려 주셨다. 첫째,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 주실 것이다 (7:9.) 이 문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한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창세기 12:2). 둘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 주실 것이다. 이 선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여호수아). 셋째, 하나님은 다윗의 적들로부터 안식을 주실 것이다. 구약에서 안식의 개념은 전쟁과 싸움의 종식과 함께 오는 평화를 의미한다 (삼하 7-1; 여호수아 11:23; 23:1). 넷째,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세워 주실 것이다 (삼하 7:11 후반).

다윗을 위한 집 (7:11 후반-17)

이 성경 구절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만일 고대 이스라엘에 마운트 러시모어와 (Mount-Rushmore) 같은 기념물이 있다면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의 얼굴이 새겨질 것이다.

7:11 후반. 하나님은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셨다. 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집을(거주지,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실 것이라고 선포했다 (삼하 7:16). 12 절과 16 절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가 다윗을 위해 세우고자 하는 “집”이 다윗의 왕조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짓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견고하게 하다, 기둥 위에 세우다*”라는 의미이다. 사무엘은 이 단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이 다윗의 보좌를 안전하고 확고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했다 (삼하 7:13, 16, 24, 26). 선지자 이사야가 위기의 때에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여 다윗의 후손 중 하나인 아하스를 도전한 것을 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는 만일 아하스 왕이 이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그의 통치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야 7:1-9, 특별히 9 절). 다윗의 뒤를 잇는 열왕들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향한 이 약속을 믿고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만 했다.

7:12-15. 이 구절들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세울 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좌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며, 이 약속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계속될 것임을 약속하셨다. 하지만,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무조건적인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들이 잘못을 할 때에 징계하실 것이다 (삼하 7:14-15; 출 19:3-5; 신 30:11-20).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순종할 때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불순종은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

7:16. 다윗의 왕국과 보좌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 문구는 사무엘하 7 장에서 여덟 번이나 반복됨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7:13, 16, 16, 24, 25, 26, 29, 29). 이는 또한 시편 89:35-36; 132:10-12, 그리고 역대상 17:12, 14, 23-24 에서도 사용되었다.

7:17. 참 선지자였던 나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윗에게 신실하게 전달했다.

다윗의 응답과 기도 (7:18-29)

7:18.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로 응답했다. 다윗의 기도의 시작 부분은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에 모세가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한다: “나는 누구시오며?” (삼하 7:18; 출 3:11).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출 3:12). 앞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하셨다 (삼하 7:9). 사무엘하 7 장에 기록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7:19. 다윗은 이 기도에서 여덟번이나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불렀다 (7:19, 20, 21, 26, 27, 28, 29, 29).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을 가리켜 두번이나 “나의 종 다윗” (7:5, 8) 이라고 부르셨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종종 “나의 종 모세” (여호수아 1:2) 또는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부르셨다 (여호수아 1:1; 신명기 34:5). 구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거나, 사람들이 누군가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굉장한 영예였다.

7:22. 다윗은 자신을 “여호와와 종”이라고 부름으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동시에 하나님을 최고의 용어들로 높여 드렸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드린 표현들을 살펴보자: “주 여호와” (7:19, 19, 20, 22, 28, 29), “여호와” (7:22, 23, 24, 27, 28), “주” (7:18, 24), “만군의 여호와” (7:26, 27), “여호와 하나님” (7:25), “이스라엘의 하나님” (7:27).

7:28.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ברית*, *berit*) 사무엘하 7 장에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그 약속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렀다 (삼하 23:5; 시편 89:3-4). 하나님이 “내가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곧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분의 성품에 근거한 약속과도 같다.

핵심 의미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긍정적인 예를 보여준다. 그는 자신이 당대에 가장 멋진 궁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삼하 5:11). 따라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서도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짓기를 원했다 (7:2). 우리는 너무도 자주 자신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저 좋은 정도의 것”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굳건한 기초라는 의미로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와 같은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이야기의 의미와 중요성은 성경의 나머지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에 영향을 준다. 이 성경 구절은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만 그들의 왕들을 세워야 함을 가르쳐준다. 비록 왕들 외에 성물이나 사람들도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왕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메시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영어로 음역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를 영어로 음역한 것이다.

구약에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왕으로 올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다윗의 뒤를 이은 후계자들이 이러한 기대를 성취하지 못하자 이 소망은 좀더 미래 지향적인 것이 되었다. 주전 586 년에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을 때에도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아모스 9:11-15; 이사야 11, 특별히 1 절과 10 절; 이사야 9:1-7).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부음 받은 자)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 (마태복음 16:16).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된다 (마 1:1-17).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인해 예수님께 찬양과 봉사로 응답해야 한다.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반원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나누라. 여러 다양한 종류의 계약에 관해 생각해 보라. (예를 들면, 결혼, 육아, 입양, 부동산 매매, 고용 계약 등).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하라:
 - 계약에 관여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 누가 계약을 지켜야 하며, 그 결과에 책임이 있는가?
 - 계약이 유지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 계약이 깨어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2. 다음과 같이 말하라: “오늘 우리는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하셨다.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

성경 공부 가이드

3. 학생 중 하나에게 사무엘하 7:1-3 을 읽도록 하라. *티칭 가이드*의 “성경 주해”를 읽고 이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라. 칠판을 양분하여 두 면으로 나누라. 왼쪽을 “이기심”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이기심이 없음”이라고 명명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하라: “성전을 짓기 원했던 다윗의 소망을 생각해 봅시다. 본문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만일 다윗이 이기적인 동기를 가졌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칠판의 왼쪽에 리스트를 작성하라. “다윗의 동기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대답들을 칠판의 오른쪽에 적으라.

4. 한 사람에게 사무엘하 7:4-17 을 읽도록 부탁하라. *티칭 가이드*의 “성경 주해”를 사용하여, 이 부분을 간략히 요약하라.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솔로몬의 시대로까지 연장하신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라. 칠판에 적은 동기들을 평가해 보고 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셨는 지를 토의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 일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정해서는 안됩니다. 이 결정을 가지고 씨름했을 다윗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방향을 조정해 주셨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5. 한 사람에게 사무엘하 7:18-29 을 읽도록 하라. *티칭 가이드*의 “성경 주해”를 사용하여, 이 부분을 간략히 요약하라. 다윗이 하나님과 그 분이 자신의 인생을 향해 품고 계신 계획에 대해 기뻐한 것에 대해 토의하라.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그 분의 속성들에 초점을 맞추라. “*비록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더 위대하신 계획을 보고 예배하며 경축했습니다.*”
6. *스터디 가이드*의 참고란에 있는 “우리가 내 거는 이름”을 요약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내 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토의하라. 그리스도인들이 표방하는 여러 상징들에 대해 토의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이러한 상징들을 내거는 것 이상의 일인지를 토의하라. 반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내걸고 살아갈 수 있는 지 물어보라.

적용

7. *스터디 가이드*의 참고란에 있는 “산 제물”을 요약하라. 로마서 12:1 을 크게 읽으라. 칠판에 적은 다윗의 두 가지 가능한 동기들을 다시 주목하라. 다윗에게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잠시 토론할 시간을 준 후에 칠판에 적인 목록들을

하나씩 지우고 다음과 같이 말하라.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곧 우리의 동기들을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칠판의 중앙에 십자가를 그리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계획 또는 이기심이 없는 계획마저도 포기하고 모든 행위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로 모임을 마치라.

[끝]

제 5 과	놀라운 승리의 연속
핵심본문 삼하 8 배경 삼하 8, 10	학습주제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셔서 군사적 성공을 주시고 그의 왕국을 부강하게 하셨다. 탐구 질문 내 삶의 승리의 경험들에 대해 마치 내가 한 일인 것처럼 주장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는가? 학습목표 내 삶의 승리들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점검한다.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사무엘하 8 장은 다윗이 그의 적들을 물리치고 그의 왕국을 부강하게 만듦으로 제국을 확립시켜 나가는 위대한 성공을 그리고 있다. 10 장은 다윗이 암몬 족속과 그들의 동맹인 아람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한 기록을 담고 있다. 오늘날 지정학적인 용어로 보자면, 이들은 암만을 수도로 하는 요르단 사람들과 시리아인들이다. 암몬 사람들의 최후의 패배가 사무엘하 12:26-31 에 기록되어 있다. 사무엘하 10 장에 기록된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은 우리가 사무엘하 11-12 장에서 읽게 되는 다윗과 밋세바 이야기의 중요한 배경을 제공한다.

사무엘하 5-8 장은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을 보여준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장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린 기간 중에서도 전성기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는 사건으로 시작하여 (5:1-5),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고 (5:6-16), 가장 큰 적이었던 블레셋을 저지함으로 서쪽 경계를 견고히 하는 사건들이다. 6 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사건을 읽게 된다. 7 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자손들이 “영원히”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7:16). 8 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사이에게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강국으로서 제국을 확립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여준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은 다윗의 조직과 행정을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다. 사무엘하 8 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윗의 제국을 보여주는 지도를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본문 해석

다윗의 제국 확립 (8:1-14)

8:1. “그 후에”라는 구절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사건과 (6 장)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기로 한 약속이 (7 장) 그 후에 전개되는 다윗의 승리들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는 지를 보여주는 의도적인 표현이다. 이 두 장은 8 장에서 전개될 모든 내용들에 대한 신학적 문맥을 제공한다 (참고: 삼하 8:6, 14). 사무엘이 묘사하는 첫번째 다윗의 승리는 블레셋에 관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서쪽으로 지중해 연안에 살았던 블레셋인들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 초기부터 가장 강력한 적이었다. 이들을 정복할 때에 다른 승리들이 잇따르게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빼앗은 “메덱암마”의 정체는 확실치 않다. 아마도 중요한 도시나 지역의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는, 이것은 “그들(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의 은유적 표현일 수도 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전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8:2. 다윗의 정복 리스트에는 동쪽에 거주했던 모압인들이 포함된다.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예들이다 (창세기 19:37).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던 롯도 모압 출신이었다. 다윗은 사울이 그를 추격할 때에 그의 부모를 모압 왕의 손에 맡긴 적이 있었다 (삼상 22:3-4). 하지만, 모압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다윗은 그들을 무찌르고 전쟁의 참상 가운데 군대의 수를 삼분의 이로 줄였다.

8:3-8. 사무엘은 이어서 다윗의 북쪽과 북동쪽 영토 정복에 대해 이야기한다. 소바는 다메섹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오늘날 시리아에 해당한다. 하닷에셀 왕은 그의 군대를 북쪽에 배치하여 유브라데 강 유역에서 전쟁을 벌였다. 다윗은 이때 남쪽에서 공격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바의 기병과 보병, 그리고 병마들을 사로잡았다. 말이 끄는 병거들은 고대

전쟁에서 오늘날 포병대와 같은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산악 지역이나 비가 오는 날씨에서는 그리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참고: 사사기 4). 다윗은 대부분의 병거의 말들이 필요하지 않았기에 백 필의 말을 제외한 나머지는 발의 힘줄을 끊어 버렸다 (삼하 8:4).

소바의 왕 하닷에셀을 돕기 위해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다윗의 또 다른 적인 아람 사람들이 (시리아) 왔다. 하지만, 다윗은 이들 또한 무찔렀고, 22,000 명의 아람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8:5).

다윗은 다메섹을 수도로한 아람에 (시리아) 수비대를 배치함으로 그의 지배하에 두었다. 이러한 책략은 2 차 세계 대전 후에 미군 기지를 독일에 주둔시킨 것과 흡사하다. 이 수비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든지 군사 작전을 벌일 수 있는 거점이 되었다.

6 절의 마지막 문장이 매우 중요하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것은 출애굽기 15:3 의 “여호와는 용사시니...”라는 말씀과 병행을 이룬다. 다윗 왕은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졌던 금 방패들과 하닷에셀의 도시들로부터 많은 노를 전리품으로 빼앗았다 (삼하 8:7-8).

8:9-12.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과 아람 군대를 물리쳤다는 승전의 소식을 다메섹의 북쪽 120 마일 지점에 위치한 하맛의 왕 도이가 듣고 관심을 갖는다. 도이는 다윗에게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값비싼 선물들을 보냈다. 다윗이 도이의 적들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였으며 또한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었다 (8:9-10). 왕 도이는 다윗이 더 북진하여 자신의 왕국인 하맛을 향해 오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사무엘이 기록한 것처럼 다윗은 왕 도이가 가져온 모든 선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점이다. 그는 또한 그가 정복한 나라들이 가져온 금과 은의 공물을 모두 여호와께 드렸다. 이 나라들은 아람 (시리아),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소바 등이다 (8:11-12).

8:13. 13 절은 다윗이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소금 골짜기에서 죽인 사건을 기록한다. 다윗은 국경의 동남쪽을 장악하고 홍해로까지 이르는 무역로를 통제했다. 이로 인해 다윗은 명성을 떨쳤다. 이러한 명성은 사실 다윗에게 위험한 순간이 될수도 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에 대해 스스로 한 것처럼 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 다행히도 이때 다윗은 초점을 잃지 않았다. 선지자 사무엘처럼 다윗은 그가 경험한 승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8:6, 14). 다윗은 금, 은, 노의 공물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승자이심을 인정했다. 이는 “승자에게 전리품을!”이라는 속담을 생각나게 한다.

다윗 제국의 조직과 행정 (8:15-19)

제국을 정복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행정적인 업무를 수반하게 된다. 다윗은 그가 정복한 나라들의 국경 지대에 수비대를 세워 군사적 정치적 주둔지가 되게 하였다 (8:6, 14).

8:15. 다윗 왕은 정의를 실행하는 임무를 지속했다. 이러한 임무는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실 때로부터(출애굽기 19-24) 사사들의 시대를 통과하여 다윗에 이르기까지 맥을 같이 한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 흥미롭게도 후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하고 왕국을 빼앗으려 했던 압살롬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비난했다 (삼하 15:2-4).

8:16-18. 다윗에게는 두 명의 군 사령관이 있었다: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이었고 (8:16), 브나야는 다윗의 개인 경호를 맡은 외인 부대의 사령관이었다 (8:18).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아히둡의 아들 사독은 제사장이 되었다 (8:17). 여호사밧은 사관으로 섬겼는데 (8:16) 이 직책은 궁정에서 왕에게 보고를 하고, 또한 왕의 칙령을 전하는 중요한 직무였다. 스라야는 서기관으로서 (8:17) 서신들을 관리하며 기록하는 역할을 했다.

핵심 의미

이 과에서 우리는 다윗 왕의 전성기와 위대한 승리들에 대해 살펴 보았다. 아마 다윗은 훗날 이 때를 돌아보며 “아 좋았던 옛날이여”라고 회상했을 것이다. 이기는 것은 즐겁다. 승리는 개인적인 만족을 준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도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든다. 속담대로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격려가 된다. 하지만,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에 우리는 심각한 유혹을 맞이하게 된다.

이 기간에 왕 다윗은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와 그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승리의 근원이셨다 (8:6, 14). 다윗은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이 바친 공물들을 여호와께 드림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 (8:11-12). 다윗은 “내가 한 것을 보라”라고 말하는 유혹의 덫에 걸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묶어 두어야만 한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승리들에 대해 자신이 영광을 얻으려는 유혹은 나 자신에게서 오기도 하지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 오기도 한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에게 영광과 명예를 돌리기 원한다. 이때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유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목회자가 목회를 잘 할 때에 자칫 신격화되기 쉽고, 목회가 난관에 부딪히면 마귀의 역사인 것처럼 여기는 것을 볼때가 종종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에게 의해 주어진 명예는 변덕스러운 주인과도 같다.

무한경쟁의 사회 속에서 자신감 또는 심지어 교만함이 겸손이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 더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지곤 한다. 우리는 성공이 가져다 주는 위험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다윗 왕은 우리가 따라야 할 현명한 본을 제공한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¹이라는 널리 알려진 찬송의 가사가 이러한 문맥에 매우 적합하다.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칠판 또는 포스터를 세로로 세 등분을 하라. 왼쪽부터 “전투들, 우리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제목을 쓰라. 수업을 시작하면서 반원들에게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라. 이 제목들을 정리해서 “전투들”란을 상하 반으로 나눈 후 윗쪽에 기록하라.
2. 반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들을 찾은 후에 이제 가운데 칸으로 옮겨서 각각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책임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대답을 정리하여 “우리의 역할”란의 윗쪽에 적으라. 또한, 학생들에게 각각의 상황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칠판에 정리하여 적으라.

3. 언급된 전투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첫번째 활동을 마치라. 특별히 인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라.

성경 공부 가이드

4. 한 사람에게 사무엘하 8:1-6 을 크게 읽도록 부탁하라. 이 *E/칭 가이드*의 "성경 주해"를 이용하여 이 과의 간략한 요약해 주라. 다윗이 전쟁을 치룬 여러 나라들에 대해 토의를 하면서 이 나라들의 이름을 "전투들"란의 아래 쪽에 기록하라. 앞에서 한 것처럼, 다윗과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책임을 가운데에 기록하고, 승리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오른쪽에 기록하라.
5. 한 사람에게 사무엘하 8:7-14 을 낭독하도록 하라. 이 *E/칭 가이드*의 "성경 주해"를 이용하여 이 과를 간략한 요약하라. 다윗이 획득한 전리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가 그것들을 어떻게 했는 지 살펴보라. 다윗이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평가해 보고, 이것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한 행위인지 토의하라. 반원들에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투들에서 진정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고 있는 지 생각해 보도록 하라.
6. 한 사람에게 사무엘하 8:15-18 을 크게 읽도록 부탁하라. 이 *E/칭 가이드*의 "성경 주해"를 이용하여 이 과의 간략한 요약해 주라. 다윗이 가진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자 하는 열망에 대해 살펴보고, 자기 주변에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웠는 지를 살펴보라. 능력있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당신의 개인적 삶에서 예를 들어 주거나, 존경할만한 지도자들로부터 예를 들어보라. 어떤 자질들이 그들을 특출난 지도자로 만들었는가? 반원들에게 그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가치들을 개발하도록 격려하라.

적용

7. *스터디 가이드*의 참고란에 있는 "성경의 사건 순서"를 읽어보라. 8 장에 나온 사건이 7 장의 이전, 이후, 또는 중간에 일어난 일인 지 토의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순서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지를 고려해 보라.

8. 에베소서 6:10-17 을 읽으라.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보라. 칠판으로 다시 돌아가서 반원들이 삶에서 겪고 있는 전투들의 리스트를 다시 점검하라. 반원들에게 우리의 싸움이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항한 싸움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라. 영적 무기들의 리스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예를 들면, 진리의 허리 띠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할 수 있고, 평화의 신발은 갈등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들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이 반원 모두를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마치라.

[끝]

제 6 과	정욕과 살인
핵심본문 삼하 11 배경 삼하 11	학습주제 다윗은 그의 정욕을 따라 행동하였으며, 그 결과 거짓과 기만, 그리고 살인을 범하게 되었다. 탐구 질문 정욕의 유혹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학습목표 정욕의 유혹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숙고한다.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사무엘하 11 장은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장은 왕으로서의 다윗의 전환점에 해당한다. 다윗의 승리들이 사무엘하 1-10 장에 기록되어 있다면, 다윗의 수난들이 사무엘하의 나머지 전체를 차지한다 (11-24 장).

이 드라마틱한 전환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신명기 전체에 드러나는 신학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은 언약의 축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은 언약의 저주와 심판을 불러온다 (신 30:11-20).

사무엘하 8 장은 다윗이 연속적으로 그의 적들을 정복하고 그의 제국을 세워나갈 때에 그가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았다. 또한, 자신을 위해 영광이나 부를 구함으로 자신을 높이지도 않았다. 그는 성공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다 (8:6, 16). 다윗은 그의 승리의 전리품들을 모두 하나님께 바쳤다 (8:11-

12).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다. 사무엘하 11 장의 비극적인 이야기의 말미에는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삼하 11:27).

사무엘하 12 장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묘사한다. 다윗은 남은 생애 동안 그가 뿌린 죄와 반역의 씨의 쓰디쓴 열매를 거두게 된다. 사무엘하 11 장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나머지 사무엘하 11-24 장에서 펼쳐질 비극적인 이야기의 서론과도 같다.

본문 해석

다윗이 정욕에 굴복하다 (11:1-13)

11:1. 팔레스타인에는 두 개의 시즌이 있다: 습한 우기와 건조한 여름이다. 다윗의 시대에는 통상적으로 겨울에는 군대가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봄이 전쟁과 전투를 치루는 적기였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년도에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치루었지만, 그 결과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제 새로운 전쟁의 시즌이 시작되는 무렵, 다윗은 요압 장군과 그의 군대를 보내서 암몬 사람들과 싸우게 하였고, 그들의 주요 도시인 오늘날 요르단의 암만에 해당하는 랍바를 점령하게 하였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는 매우 흥미로운 진술이다. 일찌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에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삼상 8:19-20). 통상적으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스스로 전쟁에 나가서 군대를 선두 지휘하였다. 다윗도 이전에는 이러한 관행을 따랐지만 (삼하 8 장), 이번에는 달랐다. 왜 다윗은 그의 장군과 군대를 보내고 자신은 나가 싸우지 않았는가? 본문은 그 이유를 명확히 진술하지 않는다. 다윗과 다른 신하들은 어쩌면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또는, 왕국을 관리 감독하는 일이 급선무였을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의 적군들을 죽일 때에는 그가 형통했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서 시간을 죽이고 있을 때에 그는 실패했다.

11:2-3. 다윗의 시대에 지붕은 궁전 안에서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고 땅의 뜨거운 지열과 숨막힐 듯한 온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였다. 다윗은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어떤 이들은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상상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다윗을 마치 “몰래 훔쳐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표현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밋세바가 다윗 왕이 왕궁의 지붕으로부터 자신이 목욕하는 것을 볼수 있는 위치에서 의도적으로 목욕을 했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가장 좋은 해석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만 그대로 보는 것이다. 다윗이 밋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본 것은 우연이었다. 밋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다윗의 반응이 문제였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했고, 그녀가 자신의 신하 중 하나인 엘리암의 딸이요, 또 다른 용사 중 하나인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11:4. 4 절은 마치 똑똑 끊어지는 문장처럼 들린다. 다윗이 전령을 보냈다; 밋세바가 왔다; 다윗이 밋세바와 동침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갔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는 한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 이 문장들에서 행동을 저지하는 듯한 구절이 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 구절은 왜 그녀가 목욕을 했는 지를 부분적으로 암시해준다 (레위기 15:19-24). 이는 또한 다윗이 밋세바와 동침을 했을 때에 그녀가 임신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분명히 해 준다. 밋세바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행위는 다윗이 간음을 행함으로 자신을 더럽힌 행위와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11:5-13. 밋세바가 취한 첫번째 행동은 다윗에게 그들의 부정한 동침으로 인해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다윗의 권력 남용을 얼마나 교묘히 묘사하고 있는 지를 관찰해보라. 그가 지은 죄를 덮기 위해 다윗은 매우 바빠졌다. 그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또한 명령을 한다: “헛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11:6),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11:8). [“발을 씻으라”는 표현은 “아내와 동침하라”는 뜻의 완곡어법이다.] 다윗은 또한 우리아에게 “오늘도 여기 있으라”고 말했다 (11:12). 다윗은 그의 비뚤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왕으로서의 모든 권력과 권위를 사용했다.

헛 사람 우리아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11:11) 다윗이 가장 기초가 되는 언약의 율법들을 (이웃의 아내를 탐냄, 간음, 살인) 위반하는 아이러니한 대조를 보라. 8 장 15 절은 다윗이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음을 선언했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새.” 이 이야기에 따르면, 다윗은 우리아를 술에 취하게 하여 집으로 보낸 후 그의 아내와

동침하도록 하려 하였다 (11:12-13). 하지만, 다윗이 불순종함으로 율법을 어긴 것과 달리, 헷 사람 우리아는 율법을 충실히 지켰다. 우리아는 순종으로 인해 그의 목숨을 잃게 되었다.

다윗이 우리아의 죽음을 도모하다 (11:14-27)

타락해버린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헷 사람 우리아를 전장에 이끌어 죽게 하도록 명령하였다. 그의 죽음의 도구는 암몬 사람이라는 무기였지만, 우리는 모두 우리아가 “다윗의 손에” 죽었다는 것을 안다 (12:9).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 그를 죽이라는 서신을 요압에게 전달한 것은 죄로 인한 타락을 잘 보여주는 슬픈 기록이다 (11:15).

11:17.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큰 값을 치루어야 했다. 요압과 다윗은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을 잃게 된다. 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다윗은 그의 사람들, 곧 “부하 중 몇 사람”을 부수적인 피해처럼 여긴 것이다.

11:18-21. 요압이 전령을 통해 다윗에게 보낸 메시지는 매우 흥미롭다. 요압은 다윗이 그를 끌어들이어 우리아의 죽음에 공범이 되게 한 것에 대해 다윗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요압은 전령에게 먼저 다윗의 분노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소식을 전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음과 같은 말로 다윗을 만족하게 했다: “왕의 종 헷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11:21).

11:22-24. 전령은 요압이 시킨대로 다윗에게 소식을 전했다. 다윗은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에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 다윗 왕은 우리아를 죽이고 싶은 욕망에 그가 치룬 희생을 잊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11:25. 25 절의 첫 부분에 보면, 다윗은 그의 군사들을 잃은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다윗은 전령에게 요압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25 절의 “걱정”이라는 단어는 27 절의 “악하였더라”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이다.

11:26. 우리아의 죽음이 밋세바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그녀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불려지고 있다.

11:27. 밋세바는 남편의 죽음을 애도했다. 보통 엄격한 애도의 기간은 7 일이다 (창세기 50:10; 삼상 31:13) 다윗은 다시 명령을 내렸다. 그는 “사람을 보내”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왔다. 다윗에게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하지만, 이 장의 마지막 문장은 “남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무엘하 11:27 후반부는 분명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요압에게 이 문제로 인해 고민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11:25),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셨다.

핵심 의미

정욕과 욕망은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잠재적인 힘이다. 인류의 시작에 관한 기록에서 창세기 3:6 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유혹에 관해 묘사하고 있다. 그 나무는 먼저 식욕을 자극했으며 (“먹음직도 하고”), 또한 정욕을 자극했고 (“보암직도 하고”), 욕망을 부추겼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그 결과는 무엇인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 심판이 뒤따랐다.

이 시나리오는 다윗 왕에게도 적용된다. 그는 욕망을 가지고 바라보았으며, 자신이 원한 것을 취했다. 그리고 심판이 뒤따랐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경고를 받아야 한다. 정욕과 욕망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역시 권력의 남용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다윗 왕은 그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졌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항상 올바른 것만은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진 힘을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엄청난 도전이 있다. 우리는 사무엘하 11 장에 묘사된 다윗의 힘의 남용을 경고로 삼아야 한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배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준다. 우리가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둔다면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대중들의 의견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사람들은 선하지 못한 일을 인정하고 두둔하기도 한다.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라고 말하며,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정당화시키곤 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로마서 12:2).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반원들이 들어올 때에 색인 카드를 나누어주라.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카드에 적도록 하라: “이번 주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는 _____ 하도록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2. 카드를 걷지 않을 것임을 말해주라. 대신에 그들이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 그 카드를 주고 다음 한 주간 동안 기도를 부탁하도록 하라.
3. “오늘 성경 공부는 다윗이 밋세바와 지은 죄에 대하여, 특별히 그가 혼자였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기가 더 어려웠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봅시다.” 유혹을 대항하여 싸울 때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가 서로의 삶을 책임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를 말해주라.

성경 공부 가이드

4. 한 사람에게 사무엘하 11:1-5 을 낭독하도록 부탁하라. *E/칭 가이드*의 “성경 주해”를 사용하여 이 부분의 간략한 요약을 해 주라. 다윗이 그의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고 혼자 남아 있었던 것이 그가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토의하라. 다윗이 밋세바를 보고 그의 육체적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헌신을 짓눌렀을 때에 다윗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지 이야기하라. 사무엘이 이전에 경고한 대로 다윗이 밋세바를 취한 것에 초점을 두라 (참고: 사무엘상 8:11-13).
5. 누군가에게 사무엘하 11:6-13 을 크게 읽도록 부탁하라. *E/칭 가이드*의 “성경 주해”를 사용하여 이 부분의 간략한 요약을 해 주라. 다윗이 그의 죄를 숨기기 위해 택했던 철저한 단계들에 대해 토의하라. 다윗의 배반과 우리아의 충성을 서로 대조하라. 다윗이 우리아의 죽음을 계획한 유혹과 가인이 그의 형제에게 행한 폭행을 비교하라 (참고: 창세기 4:7). 왜 우리는 잘못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단점을 보지 못하도록 하려 하는 지 이야기하라.

6. 한 사람이 사무엘하 11:14-27 을 낭독하도록 부탁하라. *티칭 가이드*의 “성경 주해”를 사용하여 이 부분의 간략한 요약해 해 주라. 우리아의 비극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라. 우리아는 하나님과 다윗 왕, 그리고 동료 군인들에게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분석하라 (27 절). 당신의 행동이 가끔식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은 지 생각해 보라.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죄의 속성에 대해 평가하라.

적용

7. *스터디 가이드*의 참고란에 있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을 요약하라. 여기에 언급된 이방 민족들에 대해 이야기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개념과 이러한 개념이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지에 대해 토의하라. 사도행전 10:34-35 의 베드로의 선포를 살펴보고, 그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애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라.
8. *스터디 가이드*의 참고란에 “유혹을 피하기 위한 단계들”을 함께 읽으라.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 이러한 단계들을 적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토의하라. “우리는 모두 유혹을 받지만, 그 유혹에 항복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13 을 읽고 그 의미와 적용에 대해 이야기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학생들이 처음 들어올 때에 받은 카드에 대해 다시 상기 시켜 주면서 공부를 마치라. 아직 작성하지 않았으면 되도록 빨리 작성하도록 격려하라.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유혹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나누도록 도전하라. 학생들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삶에서 직면할 유혹들을 잘 이겨내도록 기도하면서 공부를 마치라.

제 7 과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핵심본문 삼하 12:1-23 배경 삼하 12	학습주제 나단은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를 책망했다. 탐구 질문 하나님은 나의 죄를 어떻게 책망하시며, 나는 그 분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학습목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죄를 책망하시는 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평가한다.

성경 주해

배경이해

사무엘하 11 장 전체를 통해 다윗은 드라마의 주인공과 같았다. 물론 이야기 속에 다른 등장 인물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단지 다윗의 행위에 동기부여를 받는다든지 또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한 사람들일 뿐이다.

사무엘하 11:26-27 을 읽으면서 크게 한숨을 들이쉬고 안도의 숨을 내뿜는 다윗을 상상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윗이 밋세바와 저지른 간음을 숨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왕은 그의 죄를 가리기 위해 책략을 세웠고 실행했다. 사무엘하 11:26-27 에서 우리는 다윗이 밋세바와 결혼하여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게 된다. 마치 모든 고된 시련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무엘하 11:27 의 마지막 문장은 “그러나”라는 짧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로 시작된다 (역자 주: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음). 모든 사람들이 “네, 그러나”라는 짧은 단어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 지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사무엘하 11:27 에서 우리는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는 문장을 읽게 된다. 밋세바와의 불륜 후에 다윗은 안도하며 만족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이제는 고인이 되었지만 성경 주석가였던 폴 하비 (Paul Harvey)의 말을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이제 주인공이 11 장의 다윗에서 12 장의 하나님으로 전환된다. 12 장에서 하나님은 연출가가 되신다. 드라마의 나머지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에 대해 반응하고 응답한다. 이 장의 추가적인 배경을 알기 원한다면 신명기 17:14-20 (왕의 법), 시편 51 편 (다윗의 회개의 기도), 그리고 시편 32 편을 (다윗의 용서에 대한 감사의 노래) 읽으라.

본문 해석

심판을 부추기는 비유 (12:1-4)

12:1 전반.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게 하셨다. 선지자 나단은 도구에 불과했고,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신 것이다.

12:1 후반-4. 나단은 다윗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서론적인 대화도 하지 않은 채 말을 시작했다. 누군가를 책망할 때에 스토리 텔링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아모스도 비슷한 접근 방식으로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선포한 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 나단은 다윗 왕에게 심판을 불러오는 한 비유를 제시했다 (사무엘하 8:15 에 따르면, 모든 백성들을 위한 정의의 실현이 왕으로서 다윗에게 주어진 책임 중 하나였다.)

나단은 두 인물, 곧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조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지만 (12:2),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다 (12:3). 독자들은 부자가 자신의 많은 양과 소 중 하나로 손님을 접대하지 않은 것을 알고 그를 경멸하게 된다. 성경은 그가 손님을 위한 음식으로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라고 기록한다 (12:4). “빼앗다”는 단어는 사무엘하 12 장에서의 행위를 표현하는 핵심 단어이다.

부자에 대한 다윗의 심판 (12:5-6)

12:5. 독자는 불의하게 행동한 부자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다윗은 이 이야기에 대해 “정의로운 분노”로 반응했다. 그는 부자에 대해 진노하였다. 그는 심지어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심판했다 (12:5). 다윗이 이야기 속의 인물을 “부자”라는 단어 대신에 “이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계기로 나단은 7 절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선포한다.

12:6. 다윗은 그 사람이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하였지만 (5 절), 최후의 심판으로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값아 주어야 하리라”고 선포한다 (12:6). 이는 율법에 기초한 것이다 (출 22:1). 6 절은 심판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다윗의 “그 사람”에 대한 혐오를 강조한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12:7 전반. 우리는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질 지를 알고 있다. 다윗도 어쩌면 그 말을 듣기 이전에 깨달았는 지도 모른다. 이 문장은 성경에서 가장 기억되고 인용되는 문장 중 하나가 되어왔다.

다윗에 대한 심판 (12:7 후반-8)

12:7 후반-8. 나단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형적인 예언의 형식을 빌어 소개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 (삼하 12:7 후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상기시켜 주셨다. 이 부분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12:8).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함 (12:9)

12:9. 하나님은 다윗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종종 묻는 질문을 하셨다: “왜 이런 일을 했니?” 사무엘은 다윗이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묘사했다 (참고: 삼하 11:27 전반). 더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여호와와 말씀을 업신여긴”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여호와와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율법을 의미한다 (출 19-24). 그의 삶에서 추악한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십계명 중 네 가지 계명들을 어겼다 (출 20:1-17). 왕은 탐내고, 간음을 행했으며, 도둑질하고, 죽였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아내들을

주셨지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다. 다윗 외에도 많은 아담의 후손들이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이기적으로 더 많은 것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심판의 선언 (12:10-12)

12:10-12.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12:10). 이 심판은 그의 범죄에 매우 적합하다. 다윗은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 (12:9). 다윗의 가족들도 같은 형태의 폭력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참고: 마 26:52). 10 절은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기록한다. “영원”은 약속의 선포에서는 축복이지만 (삼하 7), 심판의 선포에서는 무서운 저주이다.

다윗은 은밀히 우리아의 아내를 도둑질했지만, 다윗의 아내들은 다윗의 가족 중 하나에게 공개적으로 빼앗길 것이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후에 그의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아버지의 아내들을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취하였다” (삼하 16:21-22).

다윗의 고백 (12:13 전반)

다윗의 밋세바와의 간음을 통한 행위는 추악했다.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의 반응은 아름다웠다. 그는 메시지를 전한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고백하며 회개의 반응을 보였다 (참고: 시편 51:4). 모든 죄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른 죄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죄이다. 다윗의 죄도 다를 바가 없었다. 아담의 아들과 하와의 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데 선수들이다. 대신, 다윗은 회개를 통해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특별한 사람임을 증명했다.

하나님의 용서 (12:13 후반-14)

12:13 후반-14. 13 절은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한다. 다윗은 죄악으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죄를 부인하기 보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일 1:8-10).

14 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다윗의 죄의 결과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우리아는 죽었다. 밋세바에게는 이미 잘못이 범해졌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형편없이

어졌다. 하나님은 백성들은 때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기 보다 죄의 결과를 유감으로 생각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종종 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에 바탕을 둔 용서가 아닌, 죄의 결과를 모면하는 것이다.

다윗의 죽음과 밋세바의 자녀 (12:15-23)

12:15-22. 나단은 다윗의 죄로 인한 결과 중 하나로 다윗이 간음을 통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기의 죽음은 오늘날 성경을 읽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불편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을 개인적인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라는 개념에 불편함을 느낀다 (출 20:5-6; 34:6-7). 둘째, 성경은 또한 우리가 당하는 심판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부모를 탓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 (에스겔 18:1-4, 20). 셋째, 예수님은 요한복음 9:2-3 에서 다윗과 밋세바의 아이가 죽은 것과 같은 어떤 하나의 사건을 다른 모든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원리로 삼지 말아야 함을 일깨워 주셨다. 옴기 또한 유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임을 알았다 (삼하 12:13, 22). 그래서 그는 기도하며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아이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NO”라고 대답하셨다.

12:23. 다윗이 한 말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안이 되어 왔다.

핵심 의미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을 꾸짖으셨다. 두 말할 여지도 없이 그것은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을 것이다. 다윗도 우리처럼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때로 우리가 이미 한 행동이나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되었기에 책망을 받아 마땅한 경우들이 있다. 이때 우리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 줄 사람들로 내 주변을 채우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 쉽다. 진실은 비록 때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일이다. 나단은 다윗에게 진실을 말해줌으로 다윗의 다른 모든 친구들이나 조언자들보다 그를 더 잘 섬길 수 있었다 (잠언 27:6).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삼하 12:13)고 고백하며 회개한 것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에 회개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았을 때에 변명을 늘어놓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다 (삼상 13:11-14; 15:13-31).

1972년부터 1974까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워터 게이트 사건을 통해 그가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고백을 하지 않았다. 당시 어린 대학생이었던 나는 워터 게이트 스캔들이 점차 밝혀지는 몇달 동안에 닉슨 대통령이 점점 더 늙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그는 사퇴를 하고 말았다. 만일 닉슨 대통령이 초기에 자신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했더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지도 모른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인 반면에,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요일 1:8-10). 당신은 혹시 탐심, 간음, 도둑질, 그리고 살인과 같은 죄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시편 51 편과 32 편은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죄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받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종종 우리는 은혜는 신약에 속한 가르침이며, 심판은 구약에 속한 가르침이라는 말을 듣곤 한다. 하지만, 믿지 말라. 다윗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스터디 가이드*의 참고란에 있는 “나단: 선지자이자 친구”를 요약함으로 공부를 시작하라. 개인적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서로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경험을 나누라. 우리가 성경의 진리로부터 벗어나 행동할 때에 사랑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강조하라. 반원들이 지난 주에 작성한 유혹의 리스트를 적은 색인 카드를 누군가와 나누었다면 그 경험을 공유하도록 초청하라.

2. *"다윗은 조연자들과 유능한 지도자들을 세움으로 인해 그의 통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삼하 8:15-18). 우리 또한 삶이 힘들어지고 유혹이 닥쳐 올 때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3. *"오늘 공부는 나단이 다윗의 죄를 책망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가혹한 심판의 형식으로 왕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왕을 교훈할 수 있는 한 비유를 들어서 그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였습니다. 나단이 비유를 사용한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법과 비교해 보세요."*

성경 공부 가이드

4. 누군가에게 사무엘하 12:1-6 을 크게 읽도록 부탁하라. *E/칭 가이드*의 "성경 주해"를 사용하여 이 부분의 간략한 요약해 해 주라. 나단의 비유를 자세히 토의하라. 가난한 어린 양의 주인의 행위와 부자의 행위를 대조하라. 이 비유와 이전 장에서의 다윗의 행동들 간의 유사점을 발견하라. 적용을 돕기 위해서 오늘날의 사건이나 개인적인 이야기 또는 가상의 상황을 예로 들라.
5. 누군가에게 사무엘하 12:7-9 을 크게 읽도록 부탁하라. *E/칭 가이드*의 "성경 주해"를 사용하여 이 부분의 간략한 요약해 해 주라. 나단이 그의 친구인 다윗을 책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 지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라.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금지된 실과를 먹은 것처럼, 다윗이 그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취한 사실을 강조하라. 9 절에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의 의미와 이것이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악을 행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생각해보라.
6. 누군가에게 사무엘하 12:10-23 을 크게 읽도록 부탁하라. *E/칭 가이드*의 "성경 주해"를 사용하여 이 부분의 간략한 요약해 해 주라. 다윗의 행위가 그의 가정에 미친 지속적인 결과들에 대해 이야기하라 (사무엘하 13-20). 아들의 죽음의 긴장되는 사건을 살펴보라. 무죄한 아들의 죽음을 우리아의 죽음과 비교해 보라. 시편 51 편을 읽고, 다윗이 회개를 묘사한 것을 보라. 반원들에게 다윗이 자녀의 죽음으로 인해 경험한 비통함과 그의

죄로 인한 깨어짐의 아픔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 후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죽음이나 비극적인 일들을 슬퍼하듯이, 예수님을 죽게 한 우리의 죄에 대해 (또는 이 보다 더) 슬퍼해야 하지 않을까요?”*

적용

7. *스터디 가이드*의 참고란에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요약하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와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죄책감과 사탄으로부터 와서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수치심을 비교하고 대조하라. 참고란에 있는 질문들을 사용하여 반원들이 이 둘의 차이점들을 발견하게 하라.

두 종류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한 후 모임을 마치라. 먼저, 학생들에게 그들 자신이나 가족들 또는 친한 친구들의 육적인 건강의 문제와 관련된 기도 제목을 물어보라. 이러한 육적인 필요들에 대해 직접 기도를 인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도록 부탁하라. 둘째로, 그들 자신이나 가족들 또는 친한 친구들의 영적인 건강의 문제와 관련된 기도 제목을 물어보라. 두 번째 기도를 직접 인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영적 필요들에 대해 기도하도록 부탁하라.

[끝]

제 8 과	정육과 살인, 2 부
핵심본문 삼하 13:1-33 배경 삼하 13	학습주제 다윗의 가정은 강간과 살인, 관계의 파괴로 분열되었다. 탐구 질문 가족들을 분열시키는 이유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학습목표 나의 가정을 보호하고 양육한다.

성경 주해

배경이해

현대 미국 문화는 과거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들, 그리고 심지어 기준을 정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종종 의문을 가진다. 행위에 결과가 따른다는 개념이 어떤 이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성경은 “심는대로 거둔다”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 준다 (갈라디아서 6:7-8).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로마서 3:23). 성경의 족장들의 불완전함과 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지를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은 그 분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매우 분명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들을 제시해 주셨다 (잠언 8:32-36; 16:7-8; 11:17; 3:1-2; 16:7).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그 분의 명령을 어길

때에 오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 경고를 준다 (롬 6:23; 잠 20:1; 약 1:14-15; 시편 90:12; 요일 3:4). 죄의 부정적인 결과들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무엘하 12 장에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의 도덕적 영적 무너짐으로 인한 결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2:10,13).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죄로 인해 그가 공개적으로 낮아지며 가족들의 비극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 바 있다 (12:11-12).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삼상 13-14; 행 13:22).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죄를 범하였다. 다윗은 죄로 인해 눈이 가리워 행위의 결과들을 보지 못했다. 야고보서 1:15 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자라도록 방치해 두면, 반드시 최악된 행동과 비극, 그리고 마침내 사망을 낳는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롬 8:9). 죄의 결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본문 해석

욕망의 존재 (13:1-2)

13:1. 암논은 다윗의 장남이며 그의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였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써 암논처럼 헤브론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달랐다 (삼하 3; 대상 3). 다말은 압살롬의 여동생이며 암논에게는 이복 여동생이었다. 다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종려나무”이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다.

13:2. 암논은 다말에게 욕정을 품었지만 결혼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사랑과 욕정은 서로 다르다.

욕망의 음모 (13:3-14)

13:3-4. 암논의 사촌인 요나답은 (“하나님이 격려하신다”는 뜻) 암논이 다말을 향해 품은 악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사악한 조언을 해 준다. 요나답은 암논에게 왕자인 그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잘못된 생각을 심어준다. 암논의 사랑의 고백은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기적인 욕망의 고백이었다. 요나답은 친구라기 보다 음모꾼이었으며, 죄를 부추기는 자였다.

13:5-6. 암논의 계획적인 부도덕성은 비록 악한 성적 범죄들이 벌어졌던 당시 문화 속에서도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창 19; 사 21:16-25). 요나답은 악에 매우 능숙한 사람이었다. 암논이 다말에게 자신을 돌보아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방인들의 가증한 행위와 닮은 속임수였다 (신 18:9). 그가 아버지에게 한 뽀뽀스러운 거짓말은 암논이 병적인 죄인이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드러낸다.

13:7-11. 다윗 왕은 자기도 모르게 암논의 죄에 휘말려 다말이 암논과 단 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 다말은 왕의 요청에 관계없이 그녀의 아픈 오빠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그녀는 순수한 동기와 하나님의 영으로 기꺼이 암논을 도우려 간 것이다. 그녀는 왕의 요청 때문에 더욱 두려움 없이 갔을 것이다. 암논은 그의 악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했다. 다말은 암논의 계책에 빠져 침실로 들어가게 된다. 암논이 그녀를 “붙잡았을” 때에 다말은 암논의 사악한 거짓말과 속임수에 빠진 것을 눈치챈 것이다.

13:12-14. 암논은 다말의 감정과 미래를 무시한 채 자신의 힘을 남용하여 성폭행을 하였다.

암논의 공격에 대한 다말의 저항의 말들은 매우 논리적이었으며, 경건한 것이었다:

-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에 위배된다.
- 암논의 의도가 악하다.
- 다말이 그녀의 문화 속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 암논은 지혜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잃게 된다.
- 만일 왕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한다면 다말이 암논의 아내가 될 수 있다.

이복 형제나 자매 간의 혼인은 초기에는 허락이 되었으나 후에는 금지되었다 (참고: 창 20:12, 신 27:22, 레 18:9,11). 다말의 요점은 암논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존재하며, 다윗 또한 강간 보다 결혼을 원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녀의 간청은 암논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는 결과에 관계없이 힘으로 그녀를 제어하고 겁탈을 했다.

욕망의 결과 (13:15-22)

13:15-16. 죄는 범죄자를 독살시킨다. 암논은 자기 혐오로 가득차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다 (눅 15:17). 다말을 향한 그의 “사랑”은 이제 더 깊은 미움으로 변했다. 그녀의 순결한 은혜와 아름다움이 그의 도덕적 타락을 드러내 주었다. 암논은 다말을 붙잡고 강제로 추행을 한 것으로 인해 더 큰 미움이 생겼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을 미워했으며, 그러한 행동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법도 싫었다. 자신의 죄를 즉각

고백했던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삼하 12:13), 암논은 그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다말은 욕보임을 당한채 떠나는 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이제 암논이 자신과 결혼해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출 22:16-17; 신 22:28-29), 암논은 그녀의 간청을 무시했다.

13:17-19. 암논은 자신의 종들을 불러 다말을 강제로 내어 쫓았다. 그녀는 여전히 왕의 처녀 딸들이 입는 의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는 암논에게 빼앗긴 순결의 상징이었다. 그녀를 내 보낸 후 문빗장을 닫은 것은 암논의 마지막 권력의 남용이었다. 다말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녀의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은신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재는 혐오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표시로 사용되었다. 재는 또한 정결의 표시로 사용되었는데, 영적 정결 의식에서 깨끗한 물과 함께 사용되었다 (시편 102:8-9; 렘 6:26; 욥 42:6; 단 9:3; 마 11:21; 민 19:9-17; 히 9:13; 이사야 58:5-6). 비록 다말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은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상한 마음을 상징하기 위해 재를 뿌리고 찢어진 옷을 입은 채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13:20. 다말의 가족들의 침묵은 그녀의 겁탈의 비극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었다. 압살롬은 그녀에게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니 침묵하라고 경고했다. 압살롬은 다말이 그의 집에 거하며 보호를 받도록 배려했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잊혀진 여인으로 살아야만 했다. 압살롬이 다말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격려한 것은 그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이미 일어난 강간 사건으로 인해 남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지 말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13:21-22. 다윗 왕의 분노는 구체적이기 보다 일반적이었다. 그는 슬픈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분노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암논이 그의 장남이며 그의 뒤를 이을 후계자였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다말만 벌을 받은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왕가의 사람과 결혼을 할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수치를 당하고 오빠의 집에 숨어 지내야만 했다.

압살롬이 다말의 강간 사건에 대해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은 것은 암논이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책략이었음을 후에 알게 된다. 압살롬은 다말에게 그녀의 경험에 지배되지 말라고 권면했다. 하지만, 압살롬의 생각은 점점 더 커져가는 암논에 대한 미움과 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계획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욕망의 계속된 비극 (13:23-33)

13:23-29. 예루살렘에서 15 마일 북쪽에 위치한 바알하술 ("언덕의 주님" 또는 "요새")에서, 압살롬의 일꾼들은 양 털을 수확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확은 축제의 기간이기도 했다 (삼상 25:7-8). 압살롬은 다윗에게 왕의 모든 가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축제에 참여하도록 초대했지만,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압살롬에게 누를 끼칠까봐 거절했다.

하지만, 다윗의 축복 가운데 다른 모든 아들들이 압살롬의 기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지난 2 년 동안 다윗이 다말을 위해 그 어떠한 정의도 실현하지 않았기에, 압살롬은 분명 그의 누이의 원수를 갚고 암논의 죄에 대해 보복하려는 그의 계획이 정당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는 다윗이나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지 않고, 암논을 암살하는 일을 명령했다 (신 32:35; 롬 12:19, 21; 약 1:13-16).

압살롬의 종들은 왕족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했기에, 다윗의 후계자에 대한 공격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것이 자신의 직접적인 명령에 대한 순종임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고, 암논 또한 술에 너무 취해서 그들의 공격에 저항 할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식간에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닫게 된 모든 형제들 앞에서 암논은 공개적으로 살해되었다. 그들은 즉시 압살롬에게서 도망쳐 안전을 위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13:30-33. 처음의 잘못된 보고를 들은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큰 슬픔에 잠겨 그들의 옷을 찢어 슬픔을 표현했다 (창 37:29; 44:13; 삼상 4:12; 13:19; 에스더 4:13; 욥 1:20; 행 14:14). 다윗의 사촌인 요나답은 2 년 전 암논과 함께 다말을 함정에 빠뜨리는 계획을 세운 자이다. 그는 자신이 압살롬의 계획을 알고 있음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동기까지도 알고 있음을 드러냈다.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라는 그의 말로 인해 다윗은 약간의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평강"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압살롬은 오직 그의 가정에 고통과 분열을 가져왔을 뿐이다. 다말의 오빠는 그녀를 겁탈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후 그의 어머니의 백성들에게로 도망갔다. "신실한"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암논은 절제되지 않은 그의 욕정과 하나님께 대한 신실치 못함으로 인해 그의 가정과 그의 미래를 파멸시켰다. 다윗의 가정은 강간, 살인, 그리고 원수됨으로 찢겨지게 된 것이다.

핵심 의미

미국의 가정들은 매우 중요한 현대의 사회적 문제들, 윤리와 도덕적 행위의 문제, 그리고 성경적 원칙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다. 심지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정들도 개인의 행위에 관하여 변덕스러운 태도를 갖는 것보다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기준인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들을 존중하고 생산적이며 의미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를 인도해 줄 많은 자원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 첫째, 우리에게서 우리를 가르쳐 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더 나음을 인정한다 (시 119:1-8; 잠언 16:25; 요일 2:16-17).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격려하시며, 경고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 (요 16:7, 13; 14:23-26). 우리는 또한 성경의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경고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암논의 죄와 죄의 비극적인 결과들에 대해 읽을 때에 우리는 매일 믿음의 선조들의 죄를 피하면서 그리스도의 주권에 헌신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가족을 보호 할 수 있다.

당신의 가족이 죄와 분열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가? 신자로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태도들과 행동들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나라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쉬지말고 기도하라.
- 죄의 유혹에 연약함을 인정하라.
-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 삶에서 건전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하라.
- 우리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라.
- 정기적으로 예배와 성경 공부에 참여하라.
- 가족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라.
- 자녀들과 손주들이 불편한 질문들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정직하게 답변하라.
- 문제를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면, 기독교 상담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가족을 보호하고 양육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가정을 깨뜨릴 수 있는 문화 가운데 강하게 대처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고전에 해당하는 “엄마와 아빠”에 나오는 문장들을 들려주면서, 반원들이 그들의 부모로부터 같은 표현들을 들은 기억이 있다면 손을 들어 보도록 하라.

- 그런 얼굴 계속하면 정말 그렇게 변하게 돼.
- 자꾸 어린애처럼 굴면, 어린애처럼 대할거야.
- 조용히 해. 생각을 할수 없잖아.
- 언젠가 내게 감사하는 날이 올거다.
-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바로 이유다!
- 네 친구들이 다리에서 다 떨어진다고 너도 그럴래?
-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이 낫다.
- 울지마, 안 그러면 진짜 울게 해 줄거야.
- 그런 표정 짓지마.
- 차 세우게 하지 마라!

2. 부모들에게 이러한 말들 중 하나라도 그들의 자녀에게 반복한 적이 있는 지 물어본 후 다음과 같이 말하라. *“아이들은 말하는 패턴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습관과 행동을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들의 가족들이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는 지 물어보라 (예를 들면, 좋아하는 특정 스포츠, 음악이나 음식, 등).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 성경 공부로 전환하라. *“불행히도 어린이들은 부모로부터 나쁜 습관과 행동 또한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그가 저지른 간음과 살인을 반복했습니다.”*

성경 공부 가이드

3. 누군가에게 사무엘하 13:1-4 을 낭독하도록 부탁하라. 다말을 향한 암논의 강박관념에 대해 논의하라.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박관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들: 아름다움, 패션, 건강/운동, 다이어트, 돈, 권력, 등등). 누군가에게 강박관념과 진정한 사랑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도록 부탁하라. (강박 관념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향한 것인 반면에, 사랑은 타인을 향한 것이다.)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분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 지 예를 들어보게 하라.

4.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에게 사무엘하 13:5-19 을 낭독하도록 하라. 암논의 다말을 향한 사랑이 재빨리 미움으로 바뀐 것에 대해 토의하라. 학생들 중에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감정의 갑작스러운 반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왜 감정이 바뀌었는지 질문해 보라. *“사람의 감정은 순간적으로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19, 말라기 3:6).

5. 사무엘하 13:20-22 을 크게 읽고 질문하라. *“왜 다윗은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서 이러한 실수를 범한 것은 다윗이 처음이 아닙니다”* (참고: 엘리 제사장, 삼상 2:12-17, 27-35, 사무엘, 삼상 8:1-3).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징계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을 토의하라.

6. 한 학생에게 사무엘하 13:23-36 을 크게 읽도록 하라. *스터디 가이드*의 “질문들” 중 2 번과 3 번 문제에 대해 토의하라.

7. 사무엘하 13:37-39 을 크게 읽고 질문하라. *“이 이야기 속에서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죄를 범한 아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왜 다윗은 그의 자녀들을 처벌하지 않았을까요?”* 학생들에게 부모가 일관된 훈육을 제공하지 못한 어린이의 행동을 관찰한 경험이 있다면, 그 예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라.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부모로부터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에게 생길 수 있는 잘못된 권한의 감정에 대해 토론하라.

적용

8. *스터디 가이드*의 “질문들” 중에서 5 번 질문에 대해 토의하라.

9. 색인 카드를 나누어 준후 이렇게 말하라. *“가족, 직장, 교회, 친구 등 당신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더욱 개발해야 할 태도, 습관, 또는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더욱 개발해야 하는 영역들에 대한 당신의 헌신과 그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단계들을 설명하는 당신의 결의문을 작성해 보세요.”*

10.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 롤모델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모임을 마치라.

[끝]

제 9 과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하다
핵심본문 삼하 15:1-30 배경 삼하 15	학습주제 압살롬은 치밀한 음모를 통해 그의 아버지 다윗을 폐위시키려 했다. 탐구 질문 나는 행여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가족들을 향한 음모를 꾸미지 않는가? 학습목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동기를 점검한다.

성경 주해

배경이해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압살롬의 음모보다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운 성경의 사건은 거의 없다. 압살롬의 반역의 이유는 그의 여동생인 다말의 사건에 대해 다윗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무엘하 13). 다윗이 밋세바와 행한 도덕적인 타락과 연이어 벌어진 그녀의 남편 우리아에 대한 살인이 (삼하 11) 다윗의 왕좌를 빼앗으려는 압살롬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왕실의 군대 장관이자 다윗의 조카이며 그의 신임을 얻었던 요압은 3 년 간의 이별 (13:38-39) 후에 다윗과 압살롬이 다시 만나기를 희망했다. 선지자 나단이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한 것처럼 (12:1-6), 요압도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다 (14:1-21).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다윗은 그의 아들과 대면하는 것을 거절하였으며 (14:24), 이로 인해 압살롬은 그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기 보다 오히려 좌절을 경험했다 (14:28, 32). 5 년간의 소원한 관계가 이어진 후, 다윗과 압살롬은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로 만나게 된다 (14:33).

압살롬은 잘 생기고 신체적으로 건장했다 (14:25). 그는 왕처럼 보였고 스스로도 왕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사람들은 압살롬의 표면적인 겸손함에 끌렸다 (15:5-6). 불행히도, 그의 아버지의 증오는 압살롬을 몰아내었고, 그는 왕실이 자신을 거부했다고 느꼈으며 (14:28), 결국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오늘의 공과는 가족의 음모로 인한 비극과, 우리가 자신의 길을 주장할 때 발생하는 고통과 소외를 잘 보여준다 (눅 15:11-24).

본문 해석

음모의 계략 (15:1-6)

15:1-4. 그의 아버지를 전복시키려는 압살롬의 음모는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계략을 모두 포함했다. 먼저, 압살롬은 권위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맡았다. 그는 병거와 호위병들을 포함하여 매우 인상적인 수행원들을 대동했다.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내 보였다. 그는 "당신의 불만이 정당하오"라고 말하며 공감을 나타냈고, "안타깝게도 당신에게는 나처럼 당신을 위해 싸워줄 왕이 없소"라고 말함으로 동정심을 유발했다. 압살롬의 말은 비록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는 청중들의 지지를 받았다.

15:5-6. 압살롬은 자신을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보임으로써 그 땅의 거주자들의 환심을 샀다. 그는 그들의 주장을 지지했을 뿐 아니라, 누구도 그 앞에서 절을 하거나 높은 사람처럼 대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다윗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였다.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한 것과 똑같은 이중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흠뻑했다." (곧 그들의 사랑과 존경을 얻었다.)

음모의 사명 (15:7-12)

15:7-9.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를 폐위시키기 위한 군대를 조성하기 위해 4 년간 음모를 꾸몄다.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압살롬의 주장은 진실이 아닐 수 있지만, 그에게는 반역의 의심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예루살렘을 떠날 구실이 필요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영적 중심지였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삼하 2:1-4),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태어났다 (3:2-3). 하나님께 드린 개인적인

서원은 신속히 지켜져야 했지만 (신 23:21), 압살롬은 몇 년을 기다렸다. 다윗은 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최대한 돕기 원했지만 (민 30:2), 헤브론으로 가기 원하는 압살롬의 요청은 사실 영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이었다.

15:10-12. 예루살렘에서 약 20 마일 떨어진 헤브론은 탁월한 성벽으로 보호되어 있었다. 압살롬이 아버지로부터 안전해지자, 나팔 소리와 함께 반역이 시작되었다. 음모에 의한 반역이 시작된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와 함께 여행한 압살롬의 손님들은 왕좌를 빼앗으려는 악한 계획을 몰랐다. 다윗이 신임하는 고문 중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과 함께 있었고 왕에게 아무런 조언도 할 수 없었다. 게다가, 만일 이 손님들이 압살롬의 권위에 도전한다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윗의 가장 큰 신임을 받았던 모사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합류했다. 아히도벨은 밋세바의 할아버지였다 (삼하 11:3, 23-34). 다윗의 밋세바와의 최악된 관계와 그녀의 남편의 살해로 인해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반했을 것이다 (삼하 11). 당시 아히도벨의 영향력이 대단했기에 다른 사람들도 헤브론에서 압살롬에게 담대하게 합류했을 것이다.

음모의 고통 (15:13-22)

15:13.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한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다윗은 또한 민심마저 잃었다. 게다가, 이전에 충성스러웠던 친구들도 그를 버렸다. 압살롬의 반란의 계획은 다윗에게 참담한 고통을 안겨 주었다. 한편, 압살롬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했다 (잠 30:17).

15:14-15. 다윗은 일부 고문과 친구들의 충성을 잃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충실하게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의 조언이 없어도 왕은 압살롬의 잔인함을 알수 있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주민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압살롬이 "칼날로 성읍을 찢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제 다윗이 신중한 선택을 할 때가 온 것이다.

15:16-18. 다윗과 그의 가족은 목적지를 선택하지도 않은채 서둘러 성을 떠났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이차적으로 중요한 목표는 반란군이 궁전과 성을 파괴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다윗의 첩들이 궁전에 남겨져서 질서있는 권력의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다윗의 충직한 지지자들 중에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다윗 앞에서 행진을 하면서 다윗을 보호했다.

15:19-22. 가드 사람 잇대는 비록 최근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다. 다윗은 그에게 그의 동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합류하도록 권면했다. 가드 사람들은 블레셋 족속의 사람들로서, 그들 중 일부는 다윗을 지지했다 (삼하 5:17-25; 8:12). 블레셋 사람의 다른 지도자들은 잇대가 다윗을 배신하는 것에 (심지어 죽이는 것에) 박수 갈채를 했을 것이다. 다윗이 잇대에게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라고 한 것은 아마도 그를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윗은 의심의 여지없이 외국 군대가 과거에 배신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삼상 14:21). 다윗은 이전에 충절을 바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동맹으로 거절당한 적이 있다 (삼상 29:3-7).

다윗이 600 명의 가드 사람들을 떠나 보냄으로 전력의 규모를 줄이려는 시도는 (삼하 15:18)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속임수, 허위, 흉계 및 배신이 다윗의 삶을 지배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군대의 충성심을 맹목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압살롬의 음모의 영향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잇대를 위한 다윗의 은혜와 진리의 축복은 진심이었다. 그러나, 잇대는 다윗이 약하고 공격받기 쉬울 때에 그를 떠나기를 거부했다. 잇대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했다. 어쩌면 잇대는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의 경외심과 두려움을 인정했을 것이다 (삼상 17:45-47). 잇대는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왕에게 깊은 사랑과 존경을 표했다. 잇대의 충성의 서약은 롯이 나오미에게 한 서약과 (룻기 1:15-18) 비슷하며,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잇대의 헌신은 명확하고 완전했다 ("사나 죽으나").

다윗은 가드 사람들이 다른 군대들과 함께 행군에 참여하겠다는 잇대의 결심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행진은 힘과 하나됨의 과시이다. 다윗이 왕좌를 포기한 것은 일시적이었다. 그를 향한 음모와 그의 친구들의 고통스러운 배신은 단지 사자의 마음을 깨우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음모의 눈물 (15:23-30)

15:23-24. 다윗의 후퇴로 "온 땅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국가적 영웅이 (삼상 18:6-7) 아들에 의해 망신을 당했기 때문이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언약궤를 돌보는 임무를 맡은 레위인 제사장들이었다 (대상 6:2-8, 24:6, 민 4:4-6). 두 사람은 다윗의 신뢰받는 보좌관들이었다 (대상

15:11; 27:34). 레위 사람들은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 그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15:25-26. 다윗은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 오는 일에 책임이 있었으며 (삼하 6), 그것을 신명기 12:5-7 절의 성취로 보았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였다 (왕상 8:1; 29; 11:36; 왕하 23:27). 비록 다윗이 궤의 존재가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적처럼 여기지는 않았다. 그는 궤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다. 대신에, 하나님의 손에 그의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15:27-29. 언약궤는 다윗의 정보원과 함께 예루살렘의 합당한 장소로 돌아왔다. 다윗에게는 성 안에서 일어나는 압살롬의 계획들을 보고할 눈과 귀가 되어 줄 수 있는 충성스럽고 경건한 대표자들이 필요했다. 다윗 왕은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지지했으며 (삼상 22:20-23), 그들은 그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15:30. 머리를 가리고 신발을 벗고 가는 것은 슬픔과 공허의 표식이었다 (렘 14:3-4; 미가 1:8). 다윗과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절망과 굴욕에 동참했다. 여인들과 용사들, 어린이들과 왕, 이들 모두는 하나의 장례식 행렬에서처럼 마치 국가의 복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국가의 재난을 슬퍼하듯 함께 울었다. 흥미롭게도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도 같은 언덕 위에서 하나님의 뜻과 씨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요 18:1).

핵심 의미

음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커 간다. 압살롬이 다윗 왕에 대하여 음모를 꾸민 것은 수년에 걸쳐 그의 좌절감이 분노로 자랐기 때문이다. 압살롬의 음모의 결과는 비극적이었다.

성경은 우리가 좌절감에 지배당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보자: 잠언 18:1; 21:1-31; 야고보서 2:1-4; 로마서 2:8; 누가복음 9:23; 이사야 5:20; 에스겔 34:18; 빌립보서 2:3-4; 고린도전서 13.

우리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족을 상대로 음모를 꾀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자신에게 불의를 행하게 된다. 우리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을 향해 음모를 꾸미는 것은 괜찮다고 정당화시킬 수도 있지만 (잠 21:2) 음모는 분명 죄이다 (잠 21:8, 21, 30).

어떻게 우리는 음모를 피하는 생각과 행위를 피할 수 있는가?

- 건강한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라 (잠언 15:1).
- 죄를 고백하라 (마 7:1-5).
- 항상 형제를 얻기 위해 노력하라 (마 18:15).
- 모든 일에 명예를 지키라 (롬 12:17-19).
- 용서하라 (골 3:13; 마 5:9).

우리가 만일 음모의 희생자가 된다면:

- 원수를 사랑하라 (마 5:43-44).
-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라 (롬 14:1; 15:1-6).
-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라 (시 1; 46:1-3).
- 세 가지 R 을 따르라: Respect (존경), Reverence(존대), and Relationships(관계) (벧전 2:17).
-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 (삼상 15:22).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족을 상대로 음모를 꾀한 적이 있는가? 당신의 행동과 동기를 점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 삶의 기쁨을 약속으로 누리게 된다. 이러한 신뢰가 없을 때에 고통과 관계의 소원함을 경험하게 된다.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WebMD 기사에서, 가족 심리학자 데이비드 스완슨은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를 조정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들에는 부모의 관심을 받거나, 잘못된 것을 숨기려는 것, 또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시도 등이 있다.² 성경 공부 전에 스완슨 박사가 만든 다음의 용어와 의미를 마커 보드나 포스터에 두 칼럼으로 나누어 인쇄하라. 두 번째 칼럼을 종이에 가리라.

조르기	부모에게 반복적으로 무언가 원하는 것을 졸라서 귀찮게 함으로 결국 부모가 포기하게 하는 것
거짓말	중요한 사실을 생략하거나 왜곡하여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것
보복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하거나, 부모가 "안돼"라고 말한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순종하지 않음
거짓 감정	슬픈 기색을 해서 부모가 마음을 바꾸도록 하는 것
차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에 부모와 대화와 활동을 단절하는 것
의심하게 하기	사회적 추방의 위협을 통해 부모들이 그들의 결정을 추측하게 하는 것

2. 스완슨 박사의 기사의 주제와 목적을 간략히 설명하고, 게시판에 보이는 용어에 모든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키라. 각 용어를 가리킬 때, 반원들에게 그 의미를 추측해 보도록 하라. 그 용어의 의미를 밝히고 자녀가 그것을 사용하는 예를 생각해 보도록 하라 (예: 조르기 - "제발, 엄마,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해도 되?")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여 나머지 목록을 진행하라.

3.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조종(manipulate)하려는 방법들과 이유에 대해 토론하라.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 성경 공부로 전환하라: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 뿐 아니라, 왕국 전체를 조종했다.*"

성경 공부 가이드

4. 다윗의 장남인 암논은 왕위 계승의 첫번째 후계자였지만, 그가 죽음에 따라 둘째 아들인 압살롬이 왕세자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압살롬의 후속적인 결정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토론해 보라. 반원들에게 사무엘하 15 장 1~6 절을 읽고 압살롬의 태도에 대한 단서를 찾게 하라. 그들이 발견한 것을 함께 토론하라.

5. 누군가에게 사무엘하 15:7-12 을 낭독하게 하게 한후 질문하라. *"압살롬은 어떤 이유로 아버지의 보좌를 뺏을 적기가 되었다고 판단했을까요? 그 시점에서 다윗을 향한 압살롬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 하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한 이유를 토론하라.

6. 사무엘하 15:13-17 을 크게 읽고 다음과 같이 말하라.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그가 어떻게 움츠러 들지 않았는지 상기해 보십시오. 왜 다윗은 압살롬의 도전을 정면으로 받아치지 않고, 돌아서서 도망했을까요? 그의 충성스런 군대의 노련한 용사들은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순간 그 싹을 잘라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결정은 그의 시간과 상황에 비추어 볼때에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것이었을까요?"*

7. 사무엘하 15:18-23 을 낭독한 후 질문하라. *"왜 잇대의 충성이 다윗에게 소중할까요?"* 다윗의 아들은 그를 배신한 반면에, 외국인이 다윗을 위해 기꺼이 그의 생명을 내걸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지적하라. *스터디 가이드의 "질문들"* 중 두번째 질문에 대해 토의하라.

8. 사무엘하 15:24-29 을 크게 읽고, 반원들에게 *스터디 가이드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읽고 요약하도록 하라.

9. 사무엘하 15:30-37 을 낭독하라. 아히도벨이 누구인지 상기시켜주라: 다윗의 삼십인의 엘리트 호위병 중 하나인 엘리암의 아버지 (삼하 23:3), 밋세바의 할아버지 (삼하 11:3), 그리고 다윗이 가장 존경했던 개인적 모사이다 (삼하 16:23).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지지하게된 결정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토의하라. (다윗은 그의 소녀를 유혹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했다. 우리아는 다윗의 오랜 호위병 중 하나였으며, 엘리암의 동료이기도 하다) (삼하 11:14-17; 23:39). 아히도벨이 다윗을 떠난 사건이 다윗의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지 토론하라. 다윗은 아히도벨을 심판하거나 처벌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오직 압살롬에게 그가 주는 충고를 어리석게 해 주시도록 간구했다 (삼하 15:31).

적용

10. 스완슨 박사의 조작적인 행동 목록을 참조하라. 반원들에게 압살롬의 조작적인 행위의 특성을 묘사하게 하라. *"압살롬은 누구를 어떻게 조정하려했습니까? 조작적인 행동은 오늘날 가족의 분열을 어떻게 유발합니까? 가족을 분열시키는 다른 행동과 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스터디 가이드의 "질문들"*에서 3, 4 번 문제를 토론하라.

11.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와 화해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모임을 마치라.

[끝]

제 10 과	저주와 기만을 당하다
핵심본문 삼하 16 배경 삼하 16	학습주제 그의 아들이 음란한 행위로 그를 수치스럽게 하는 동안 다윗은 조롱과 기만을 당했다. 탐구 질문 당신은 조롱이나 기만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학습목표 조롱과 기만을 어떻게 은혜와 절제로 반응할 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성경 주해

배경이해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들 중 한 명이었지만, 조롱과 기만을 당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에 의해 배신과 굴욕을 당했다. 다윗은 고의적으로 밋세바와 간통을 했다 (사무엘하 11 장).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죄를 책망했다 (삼하 12 장). 나단은 다윗이 그의 직계 가족 중 누군가의 음란한 행동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12:11-12). 왕의 죄는 비밀리에 행해졌지만, 그의 죄의 결과는 대낮에 목격되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을 모욕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었다. 압살롬의 분노는 다윗의 장남,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성폭행함으로 시작되었다. 다윗이 암논의 죄를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의 분개는 증오로 발전했다. 그 불의는 압살롬의 괴로움에 불을 붙였고, 결국 그의 증오가 분출하게 된 것이다. 다윗과 압살롬의 격렬한 틈은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었으며, 성경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를 만들어냈다.

다윗의 밋세바와의 죄는 그가 결코 상상조차 못한 방향으로 그의 가족과 나라를 궁지에 빠뜨렸다.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용서하셨지만 (삼하 12-13), 그의 죄의 고통스런 결과는 그가 막을 수 없었다. 조롱과 기만을 당한 다윗은 그의 생명을 구하고 왕국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에 대항하여 싸워야만 했다.

조롱과 기만을 당할 때에 당신과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배신과 고통을 다룰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갈등에 반응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은혜와 절제이다 (잠 19:11). 조롱과 속임수에 대한 다윗의 갈등에 대해 오늘날의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당신의 경험의 통찰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사용하라.

본문 해석

신중한 신뢰와 경솔한 결정 (16:1-4)

16:1. 므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며, 사울의 손자였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삼하 4:4) 비통한 소식을 들은 므비보셋의 유모는 그를 그만 떨어 뜨리게 되었고, 그는 남은 생애를 걸을 수 없게 되었다 (삼하 19:26). 다윗이 왕국을 확보 한 후 요나단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했다.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했기에 (삼상 20:16-17, 41-42) 므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그의 보호 아래 살게 하였다.

감람산을 넘어서자 다윗은 그의 피난을 위한 식량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므비보셋의 종을 발견했다. 다윗은 이전에 시바를 므비보셋의 청지기로 임명했으며 (삼하 9), 그가 이전에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에게 충성을 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삼상 24:11). 시바는 사울의 혈통에서 다윗이 왕국을 빼앗은 것에 대해 원한을 품었을 지도 모른다 (삼하 1-4). 따라서, 다윗은 그를 함부로 믿을 수 없었다.

16:2-4. 시바는 다윗의 질문에 말이 안 되는 대답을 했고, 이는 분명 경계할 만한 것이었다. 다윗은 음식과 음료의 목적을 알고 있었다. 그는 또한 안장을 한 짐승의 목적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다. 시바는 그 선물들이 므비보셋이 아닌, 자신이 드리는 것이라고 암시했다. 그는 또한 거짓으로 므비보셋이 사울 왕조를 회복하기 원한다고 보고했다.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어쩌면 다윗은 그가 가져온 식량들이 필요했기에, 시바를 믿었을 것이다. 다윗은 또한 이전에 사울에게 충성했던 사람의 공개적인 지지를 원했다.

후에 므비보셋은 다윗에 대한 그의 충성심을 변호했고 (19:24-27) 시바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다.

다윗은 그의 비난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므비보셋의 옛 땅을 시바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겠다고 맹세한 바 있다 (삼상 20:14-17; 24:21-22; 삼하 9:9-10). 경솔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므비보셋의 땅과 생계를 사울 왕의 계보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 버린 것이다. 다윗의 선택은 지혜롭지 않았다.

죄를 인정하고 비난을 용납하기 (16:5-14)

16:5-8. 바후림은 여리고로 향하는 감람산 근처의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이었다. 다윗이 약해진 틈을 타서 용기를 얻은 시므이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살인자라고 비난했다. 사울의 친척들은 다윗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사울의 혈통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고 좌절감을 느꼈다 (삼하 3:1). 시므이는 살인을 한 왕이 사울의 친족에 대한 그의 만행에 합당한 것을 받고 있다고 선언했다. 사실, 시므이의 비난은 거짓이었다 (삼하 3:27, 4:5-12). 돌과 먼지를 던지는 것은 경멸과 혐오감의 표시일 뿐 아니라, 왕의 연약함을 상기시켜 준다. 압살롬의 반역이 완전하다는 시므이의 주장은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후에 시므이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다윗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했다 (참조: 삼상 19:16-23, 열왕기상 2:8-9, 3:36-37).

16:9-10. 아비새와 요압, 그리고 아사헬은 다윗의 조카들이며 신뢰할 만한 용사들이었다. 그들은 시므이의 무례함을 그들이 보호하기로 맹세를 다짐한 왕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으로 인정했다. 아비새는 왕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 갔지만, 다윗은 불필요하고 현명하지 못한 대결을 중단시켰다.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였으며, 특히 그녀의 특출난 아들들로 인해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여인이었다. 다윗은 아비새의 충성심을 인정했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자신을 두었으며, 시므이의 판단에 동의했다.

16:11-14. 다윗은 압살롬의 배신의 충격으로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보복하지 않았다. 게다가 다윗은 자신의 죄악과 씨름하고 있었다 (시 51:3). 시므이의 저주는 나단의 예언을 (삼하 12:7-13) 입증하는 것이기에, 그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였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게 되면 사울의 친족을 분노하게 하여 압살롬의 힘에 합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다.

시므이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의 막내 아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베냐민 지파의 일원이었다. 베냐민 자손들은 비록 작은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호전적 성격과 검술로 유명했다. 그 누구도 그들의 용맹에 도전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기브아의 베냐민 자손들의 부도덕함은 잘 알려져 있었다 (사사기 19-20 장). 다윗은 자신의 부도덕함을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을 사용하여 그를 징계하셨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다윗은 자신이 현재의 굴욕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돌아오기를 소망했다 (신 23:5). 다윗의 용사들은 시므이의 끊임없는 "저주"(삼하 16:9)를 간신히 참아냈다. 그의 저주는 다윗의 지친 무리가 요단강의 깨끗한 물가에 이른 후에야 그쳤다.

수치스러운 충고와 부끄러운 행위 (16:15-23)

16:15-19. 이전에 다윗의 모사였던 두 사람이 압살롬에게 합류했다. 그러나 후새는 다윗의 첩자였다 (삼하 15:32-37). 후새의 미묘한 인사는 그가 어떤 왕을 축복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압살롬은 후새가 다윗을 배반했다고 비난했다. 후새는 수완을 발휘하여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하지만, 그 "택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마치 못해 그는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라고 얼버무렸다. 좀 더 정확한 의역은 "나는 당신의 아버지의 충성된 신하로서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이다.

16:20-22. 아히도벨과 후새는 서로 다른 조언을 주는 진영을 대표했다. 후새의 지혜는 더 신중했을 것이다. 하지만 압살롬은 아직 후새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고 그에게서 대담함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다른 진영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 아히도벨의 충고는 수치스럽고 정치적으로도 무모한 것이었다. 압살롬이 그의 권고를 따른다면 압살롬이 다윗을 멸망시키려는 결심에 대해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행동은 이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 참고: 사무엘하 3:6-10, 26-28).

압살롬에 대한 아히도벨의 충고는 나단의 예언의 성취였다 (삼하 12:11-12). 아히도벨의 충고의 동기는 아히도벨의 손녀인 밋세바와 범한 다윗의 죄였을 것이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모두 레위기 20:11 을 무시했다.

16:23.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정치적 계산을 신뢰했다. 아히도벨은 다윗에 대한 반란의 성공을 위해서 압살롬이 공개적으로 왕처럼 행동함으로써 그가 권위자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압살롬의 음란한 행동은 성적인 지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인 정치적 파워의 표현이었다. 압살롬은 자신의 행동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윤리 기준과 성경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그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었다.

아히도벨은 그동안 남몰래 다윗에 대한 혐오를 품어 왔기에 압살롬에게 악한 권고를 했을 것이다. 압살롬은 너무도 권력에 굶주려 있었고 미움으로 가득차 있었기에 아히도벨의 수치스러운 충고와 그 후의 부끄러운 행동을 거부할 수 없었다. 경건한 충고는 결코 악하지 않으며, 악한 충고는 결코 경건할 수 없다.

핵심 의미

우리는 모두 조롱과 기만과 배신을 당할 수 있다. 이러한 공격은 허물없는 친구, 동료 또는 교회의 교우로부터도 올 수 있다.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로부터 오는 공격은 더욱 고통스럽다. 우리가 조롱과 속임수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그리스도와 동료 신자들과의 우리의 교제의 깊이를 드러낸다 (요일 1:5-9; 잠 19:11).

다윗은 그의 왕국을 잃기 보다 그의 아들을 잃는 것을 더 걱정한 것처럼 보인다. 그의 마음은 압살롬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 배신과 조롱의 고통은 우리의 초점을 더 중요한 문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적절한 슬픔의 기간이 지나면 신자들은 관계의 회복이 (우리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서로간에)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마태복음 5:23-23, 43-48). 비록 관계의 회복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시기에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과 성품이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도 있다.

다윗은 목자였고 군인이었으며 왕이었다. 그의 생애의 모든 단계에는 그의 리더십과 용기 또는 결정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당신은 어떠한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인격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는가? 당신은 조롱을 당하거나 속임, 또는 배신을 당한 적이 있는가? 처음 충격을 받은 후,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윗의 예는 우리가 배신과 기만, 그리고 조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죄가 있다면 인정하라.
-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위로를 발견하라.
-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인내하라.
- 거짓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라.
- 타인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라.
- 진실한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라.
-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라.
- 말을 조심하라.
-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하실 것을 신뢰하라.
- 슬퍼하라.
-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라.
- 영적, 정서적으로 성장하라.
- 용서하라.

기만과 조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마 18:21-22) 우리 구주의 모범에 기초해야한다 (눅 22:47-51).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다툼을 피하며 살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조소와 속임수에 단호하면서도 자제력과 은혜를 잃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모든 삶의 환경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기쁜 선물 중 하나이다.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다음의 사례 연구들을 기록하고 있는 카드를 낭독해 주거나, 나누어주라.

- 제멜바이스 (Ignaz Semmelweis)는 19 세기 헝가리의 산부인과 의사 (출산 전문 의사)였다. 1847 년경에 그는 환자를 만지기 전에 손을 씻으면, 발열과 질병에 걸리거나 출산 중 사망을 하는 여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다른 의료 전문가들은 그것을 미친 생각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를 비웃었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그를 정신 병원에 유인하고, 때리고, 가두어서 몇 주 안에 그는 죽게 되었다.
- 19 세기 초반, 대부분의 의사들은 더러운 공기를 통해 질병이 확산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다섯 자녀 중 세 명이 감염병으로 사망 한 후, 프랑스 과학자 루이 파스퇴르는 (Louis Pasteur) 세균이 전염병의 실제 원인이라고 결론을 짓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데 자신을 삶을 헌신했다. 1850 년대에 그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전체 의료계는 조롱과 저항으로 반응했다.
- 클로드 모네는 (Claude Monet) 1840 년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열살이 되었을 때, 사실주의가 미술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네는 다른 시각으로 그의 주변을 보았다. 그가 30 세의 나이에 인상주의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파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재능을 조롱했고, 그의 작품을 거부했다.

2. 사람들이 자신이 반대하는 사람, 실패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 또는 자기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조롱하는 경향에 대해 토론하라. 이 특별한 사례 연구들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성과의 장점이 최종적으로 인정될 때에야 비로소 정당성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주목하라.

3. 다윗 왕이 압살롬의 공격에 앞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쳤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반대하고 조롱했는지 토론함으로써 성경 공부로 전환한다. 다윗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만을 당했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배신은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은 그 모든 것을 통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성경 공부 가이드

4. 삼하 16:1-4 을 낭독하라. 시바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토론하고 질문하라. *"왜 다윗은 자신이 자녀처럼 기른 므비보셋에 대해 가장 최악의 상황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쉽게 믿었는가?"* *스터디 가이드*의 "질문들" 중 1 번 문제를 토의하라.

5. 여러 사람에게 삼하 16:5-14 을 소리내어 읽게 하라. *스터디 가이드*의 배경 정보를 참조하여, 시므이가 다윗을 미워한 이유에 대해 토론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하라. *"시므이는 다윗에 대한 압살롬의 승리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낸다고 믿었습니다."* *스터디 가이드*의 "질문들"에서 3 번 질문을 토론한다.

6. 반원들에게 실제 또는 가상의 첩보원들의 이름을 생각해 내도록 권유하라 (James Bond, Mata Hari, Julius and Ethel Rosenberg 등). 첩보원에 대한 몇 가지 전형적인 관념에 대해 토론하라. (예를 들면, 무기, 무술, 국제적인 여행, 첩단 도구 등) 삼하 16:15-23 절을 소리내어 읽은 후 참가자들에게 후새와 현대의 첩보원들에 대한 고정 관념을 비교해 보도록 하라. 질문: *"후새의 동기와 작전 절차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그의 공헌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한다. 후새의 충성을 압살롬과 아히도벨같은 사람들의 충성되지 못함과 대조하라.

적용

7. 반원들에게 이 구절에 등장하는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것을 맡김, 낙심 등) 다윗의 태도를 특징짓는 단어나 구절의 목록을 자유롭게 생각해 보도록 하라. 광범위한 배반을 직면한 다윗이 상대적으로 침착하게 보이는 이유를 토론하라. 이사야 26:3 을 읽고 질문하라. *"우리가 다윗의 모범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일관된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토론하라.

8. 기도로 모임을 마치라.

[끝]

제 11 과	잃은 아들을 애도하다
핵심본문 사무엘하 18 배경 사무엘하 18	학습주제 다윗,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아들을 잃다 탐구 질문 자식의 죽음으로 애통하는 부모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학습목표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부모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

성경 주해

배경이해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논쟁적인 관계는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 하나를 이루었다. 아버지에 대한 압살롬의 좌절은 이복 누이인 다말(삼하 13:1-22)의 성폭행에 대해 다윗이 암논을 처벌하기를 꺼리는 데서 시작되었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그 후 3년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은 압살롬과 다윗의 전투적 관계를 더욱 심화시켰다 (삼하 13:23-29).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오랜 기간(삼하 14:24) 동안 그를 직접 만나는 것을 거부했다. 압살롬은 거절감을 느꼈고 보복을 두려워했을지도 모른다. 몇 년의 별거 끝에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을 때, 압살롬은 그들의 관계에서 거의 위안을 찾지 못했다 (삼하 14:32-33)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그의 시간을 정치적 연줄을 쌓기 위해 사용했고, 그의 아버지를 전복시키고 왕위를 빼앗기 위해 비밀리에 군대를 조직했다 (삼하 15:1-6). 정치적 음모와

공작에 이어 이스라엘의 고대 정신적 중심지인 헤브론에서 본격적인 군사 쿠데타가 시작되었다 (삼하 15:7-10).

다윗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불필요한 유혈사태를 피하고 그의 군대를 집결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삼하 15:13-14). 게다가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기를 든 것을 슬퍼하였다. 다윗은 비탄과 군사적인 방어를 위한 준비는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지휘부 요원에 스파이를 배치한 것은 현명했다. 다윗의 소중한 조연자 가운데 한 사람인 후새도 압살롬에 가입하는 시늉을 했다. 부주의한 압살롬에게 한 간계스런 그의 충고는 다윗의 목숨을 구했다 (삼하 17:14). 다윗은 이어지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

오늘 우리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과 함께 슬퍼한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슬픔을 함께 나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을 공부하면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희망과 평화를 찾으려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친구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본문 해석

전쟁 계획 (18:1-5)

18:1-2. 압살롬에게 권한 후새의 조언 (삼하 17:5-14)은 다윗과 그의 군대가 휴식과 전쟁 계획을 짜낼 시간을 주기위해 계산된 것이었다. 다윗은 빠르게 3 개 부대의 전투력을 증강시켰다. 다윗의 조카 요압과 아비새가 두 부대를 지휘하였다. 세번째 부대는 적지않은 동료 용사들을 데리고 온 겁없는 가드 사람 잇대의 지휘를 받았다. 다윗은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전투에 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18:3-5. 다윗과 그의 군대는 길르앗 근처 요단강 너머에 있는 마하나임 성읍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다윗은 참모들의 조언에 따라 전장의 표적이 되는 대신 도시에 남아 있기로 했다. 다윗은 부하들을 격려하고, 아직 어린 압살롬에게 부드럽게 대하라고 명령하였다. 아마도 다윗은 그와 그의 아들이 화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전쟁의 흥포 (18:6-11)

18:6-8. 다윗의 장군들은 압살롬의 군대가 덜 유리할 수도 있는 마하나임 북서쪽의 에브라임 숲에서 전투가 격렬해지도록 그들의 전략을 설계했다. 전투가 격화되자 압살롬의 군대는 전투의 격렬함과 울창한 숲의 경계선에서 혼란에 빠졌고 압도되었다. 칼에 의해 죽은 자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간 숲에 대한 언급은 다윗의 친척이었던 압살롬의 군대 지휘관 아마사(삼하 17:25)의 지휘 아래에 있던 작전 효과를 제한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 숲은 또한 전쟁의 어둠과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뜻, 그리고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상징했다. 즉 전쟁의 결과는 왕들과 군대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와 그의 손에만 달린 것이었다.

18:9-11. 압살롬은 좀처럼 자르지 않는 웅장한 머리모양(삼하 14:26)으로 유명했다. 도망치기 위해 노새를 타고 달려가다가 그의 머리카락은 떡갈나무의 낮은 가지에 엉켜 버렸다. 그 노새가 압살롬을 놔두고 계속 달려가자 그는 공중에 대롱 대롱 매달리게 되었다. 압살롬이 살려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요압의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이 무방비 상태의 압살롬을 알아보았으나, 그를 해치려 하지 않았다.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린 상징성은 이론적으로 의미심장했다. 신명기 21:23에 따르면, 압살롬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압살롬의 군대는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고, 다윗의 손에서 재빨리 달아날 노새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다.

압살롬의 곤경을 보고도 죽이지 않았다고 보고하는 병사를 질책하는 모습은 군사력과 전쟁의 목적에 대한 요압의 됴됨이를 잘 보여준다. 요압은 압살롬이 전사하는 것을 더 좋아했을 것이다. 그는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이 죽어야 된다고 느꼈다.

압살롬의 죽음 (18:12-18)

18:12-15. 다윗은 압살롬을 심하게 다루지 말라고 명령했었다. 가능하다면 그의 목숨은 살려주는 것이었고, 다윗의 부하들은 이 명령을 이해했다. 압살롬을 발견한 사람은 다윗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를 해치려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요압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보상금 (18:11) 걸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고발하였다 (18:11). 그는 또 자기가 압살롬을 해치면 다윗의 노여움을 사게될 때 요압이 자기도 압살롬과 같은 신세가 되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압살롬의 운명을 논하는 것은 요압에게는 시간 낭비였다. 요압의 입장에서 볼 때 내전은 압살롬의 죽음과 함께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 다윗은 앞서

요압의 친구인 우리아의 죽음을 명령한 바 있다. 지금은 요압이 다윗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그 아들의 죽음을 택하였다. 요압은 압살롬이나 위협으로 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왕상 2:5; 삼하 20:9).

다윗의 왕국에서는 요압보다 더 두려운 사람은 없었다. 그는 성질이 급하고 무자비했다.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여 왕에게 상의하지 않고, 자주 다윗을 대신하여 행동하였다. 요압과 다윗은 불편한 관계였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좀더 심사숙고 하는 스타일이고 반응이 느렸기 때문이다. 다윗이 죽은 뒤에 요압은 솔로몬 왕에게 처형되었는데, 슬기로운 솔로몬 왕은 요압을 이스라엘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다. 요압은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전사였다.

18:16-17. 압살롬이 죽자 그를 지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도망쳤다. 반란은 실패했었다. 다윗왕은 승리했다. 압살롬은 나무에서 끌어내려졌고, 하나님의 저주가 깃든 대상으로서 (신 21:23), 그의 몸은 아무런 장례의식 없이 구덩이에 던져졌다 (창세기 37:19-23). 그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족 무덤에 정중하게 매장되지 않고 어두운 숲에 있는 약속의 땅 밖에 묻혔다. 돌 무더기는 반항하는 아들을 돌로 쳐죽여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 (신 21:10-21)을 반영한다.

18:18. 압살롬이 일찍이 자기 자신을 기리려고 했던 시도는 아이러니했다. 유산을 잃어지고 기억을 되새겼을 그의 세 아들은 죽었다 (삼하 14:27). 압살롬은 그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돌비를 세웠으나, 돌무더기는 그의 죽음에 불명예와 수치를 안겨주었다.

아버지의 비애 (18:19-33)

18:19-23. 요압은 이전에 아히마아스가 다윗의 목숨을 구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하 17:17-21),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비극적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꺼려했다. 나쁜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들을 가혹하게 다룬 다윗의 명성은 잘 알려져 있었다. 요압은 아히마아스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히마아스는 제사장 혈통이었다. 그의 이름은 "사독의 아들"을 의미했다. 제사장으로서 그는 승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고, 제사장은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 같다. 요압은 훨씬 더 실용적이었다.

구스 사람은 비이스라엘인이었고 왕에게 위대한 승리를 알리는 영광을 느꼈다. 그는 요압의 명령을 받고 바로 떠났다. 나중에 요압은 아히마아스가 구스인의 뒤를 쫓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보상은 약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히마아스에게 상기시켰다. 요압은 구스인이 먼저 다윗의 본부에 도착해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분노를 살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요압이 모르는 지름길로 가서, 구스 사람을 앞질렀다.

18:24-29. 압살롬의 안전에 대한 다윗의 기대는 그의 본부로 달려오는 첫 번째 전령이 아히마아스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높아졌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지만 아히마아스의 보고는 솔직하지 못했다. 그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사실만 보고했을 뿐이다. 그는 전투의 혼란으로 압살롬의 생사에 관한 다윗의 질문에 완전히 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짓말로 애매모호하게 답했다. 아히마아스는 환영받지 못하는 소식의 전령이 되는 것에 관한 요압의 경고를 갑자기 알아차린 것 같았다. 그는 왕의 노여움을 무릅쓰지 않기로 결심했다.

18:30-33. 구스인 전령은 불과 몇 분 후에 비슷한 승리의 소식을 전하며 도착했지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직설적이 아닌 말로 덧붙였다. 그가 죽은 상황은 생략되었는데, 아마도 요압의 명예에 의한 것일 것이다. 요압이 구스인에게 지시한 내용은 사무엘하 11:18-21 에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던 메시지와 현저하게 유사했다. 요압은 교활했고 다윗의 분노를 어떻게 꺾어야 할지 알고 있었다.

그의 군사적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다윗의 압도적인 상실감은 다른 사람들에게 간과되었다. 그러나, 다윗의 내면에 있는 것들은 마침내 다윗의 슬픔에 동참하였다. 다윗은 사랑하는 압살롬 대신 죽기를 바라며 다락방에 숨어 비통하게 울었다.

핵심 메시지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슬픔은 우리에게 비극과 슬픔이 삶의 틀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법 집행 목사로서, 나는 종종 새벽 시간 전에 아이를 잃는 것과 관련된 사망 통보를 해왔다. 경찰관과 목사들은 질문에 답하고, 위로를 제공하고,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슬퍼하는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후속 정보를 남긴다. 목사나 경찰관은 같이 공감하고 전문적이지만 그들의 소식은 충격적이다. 그 가족은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어떻게 교회 신도들이 아이를 잃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는 부모와 가족들이 그들의 상실에 대해 적절한 슬픔을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다윗이 슬퍼하는 것은 그의 치유에 필수적이었다. 버팀목이 되어주는 친구는 부모와 가족들이 그들의 고통, 분노, 그리고 심지어 죄책감까지도 아무런 판단 없이 애정 어린 환경에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듣는 것을 배우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교회 구성원들은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슬픔을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중은 슬픔의 단계를 더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정서적 필요와 경계를 이해하는 돕는 친구가 되는 것도 아이를 잃은 부모들을 돌보는 한 가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연민과 보살핌을 대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공한다(로마서 8:38-39).
- 교회는 하나님의 귀를 제공한다(빌립보서 4:6-7).
- 교회는 하나님의 공감을 제공한다(히브리서 4:16).
- 교회는 하나님의 힘을 제공한다(고린도후서 4:7)
- 교회는 하나님의 평화를 제공한다(요한복음 14:27).
-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는 길을 제공한다(계시록 21:1-4).

교회의 빛은 우리 생애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게 빛난다. 당신의 교회의 빛은 어떤 면에서 아이를 잃은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가?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수업 전에 화이트보드나 포스터 용지에 아브라함 링컨, 메리 타일러 무어, 에릭 클랩튼, 존 트라볼타, 조 바이든, 마리 오스몬드, 마이크 타이슨, 캐롤 버넷, 로알드 달 등의 이름을 적는다.

2. 수업이 시작되면, 이름 목록을 전시하고 이 모든 과거와 현재의 연예인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공유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라. 정답은 그들 모두가 죽은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다. 아이의 죽음이 부모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라. 미국 국립 의학 도서관과 국립 보건 연구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면 아이를 잃는 것이 가족 관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족들의 이혼율은 전국 평균보다 8 배나 높다. 죽은 부모는 아이가 죽은 후 3 년 이내에 사고나 자살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고 말기 질병과 만성 질환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다윗 왕이 두 아들을 잃은 슬픔을 비통해 했다는 것을 주목하며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 (사무엘하 12:13-18, 13:28-31). 압살롬이 반란을 했듯 안 했든, 다윗은 또 다른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았다.

성경공부 인도

4. 크게 사무엘하 18:1-8 을 읽는다. 다윗이 군대를 조직하고 그들이 전투 준비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다윗의 마음 상태를 논하라. 이렇게 질문하라, 다윗의 마음에 어떤 걱정거리가 작용했을까요? *학습 공과*의 "질문" 섹션에서 질문 2 에 대해 토론하라.

5. 반원 중 한 명 이상의 자원자가 사무엘하 18:9-18 를 큰 소리로 읽어라. 압살롬은 요압의 만사춘(역대상 2:13-16, 삼하 2:8:16)이자, 다윗 왕의 아들이다. 요압이 왜 압살롬을 살려두라는 다윗의 명령을 그렇게 쉽게 거역했는지 묻는다. 압살롬을 명예도 장례의식도 없이 비문없는 무덤에 묻기로 한 요압의 결정을 논하라.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한 사건 (삼하 13:28-29)을 떠올리자. 이렇게 질문하라, 두 죽음은 어떤 유사점을 가지고 있나요?

6. 하나 이상의 자원자가 사무엘하 18:19-33 을 큰 소리로 읽게하라. 반원들에게 이야기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생각을 설명해보도록 격려하라: 요압과 다른 지휘관들, 다윗의 병사들, 마하나임에서 그와 함께 있었던 다윗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다윗 왕 자신. 압살롬은 의도적으로 다윗의 원수가 되었다. 물어봐라, 다윗의 지나친 슬픔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기분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학습 공과*의 "질문" 섹션에서 질문 3 에 대해 토론하라.

적용 격려

7. 질문하라, 슬픔이 어떤 면에서 사람의 이성이나 좋은 결정을 내리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만약 기꺼이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명확하게 생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유족들을 관찰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도록 요청하라. *학습 공과*의 "질문" 섹션에서 질문 4에 대해 토론하라.
8. *학습 공과*에서 "탐구 질문"을 큰 소리로 읽을 사람을 찾는다. 반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슬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모와 가족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브레인스토밍할 것을 요청하라. 참가자들이 도움이 되는 제안과 자원을 찾기 위해 미국 내의 "*Compassionate Friends or Bereaved Parents of the USA*" 과 같은 국가 지원 단체에 대해서도 참고하도록 제안하라.
9.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안을 빌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더 민감해지기를 기도함으로써 수업을 마친다.

[끝]

제 12 과	반역이 실패하다
핵심본문 사무엘하 20 배경 사무엘하 20	학습주제 한 현명한 여인이 한 골치덩어리로부터 도시를 구했다. 탐구질문 우리는 어떻게 골치덩어리들에게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을까? 학습목표 골치덩어리들에게 경건한 지혜로 반응하는 것을 배우기

성경 주해

배경 이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과 그의 슬픔은 다윗 왕 (삼하 18:33; 19:4)을 무겁게 짓눌렀다. 다윗의 슬픔이 상황의 현실과 상충되었다. 그의 아들은 그에게 반항했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문에 서서 아버지를 비난하고 백성의 마음을 얻음으로써 추종자를 얻었으며, 아버지의 왕국에 반기를 들었다 (삼하 15:6). 일반적으로, 다윗에게는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손상시키기 위해 성문에 서서 비난하고 반항하는 자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라. 리더십은 비판, 분노, 반항, 그리고 저항의 척도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또한 많은 축복을 제공하지만 말이다.

다윗은 말년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비극과 혼란, 불안과 고통을 경험했다. 압살롬의 경우 다윗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다. 그의 아들은 반란을 일으켜 죽었고, 그의 오만함으로 압살롬은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압살롬의 기념비," 삼하 18:18). 압살롬은 아마사를 요압 (삼하 17:25) 대신 그의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 압살롬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세부적인 내용과 다윗에 대한 반란은 또 다른 봉기에 직면하여 행해진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사무엘하 20 장)에 대한 반항적인 반란을 일으켰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읽는 것은 열 두 지파와 지파간의 경쟁에 대한 정치의 지속적인 도전을 이해하지 않고는 어려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종족간의 공작, 질투, 전쟁 전략, 그리고 압살롬과 세바의 경우에는 노골적인 반란이 다윗 왕 시대에 일어났다. 오늘날에는 다윗 왕의 통치 기간과 마찬가지로 부족간의 갈등이 중동에서 지속되고 있다. 한 리더로서의 다윗의 도전은 왕국에서 단결을 유지하고, 건강한 지도력의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나쁜 태도, 갈등, 반란, 역모 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포함되었다. 훌륭한 지도자는 목적 의식을 발달시키는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랐다. 이에 따라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왕국의 단결을 보존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갈등을 처리하고 반란군을 상대해야 했다. 갈등을 일어나는 대로 관리하는 것은 종종 심각한 부담이 되지만 지도자의 삶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본문 해석

불량배 (20:1-3)

20:1-2. 사무엘하 20 장의 분쟁은 베냐민 지파의 비그리의 아들로 살고 있는 세바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구약성서의 다른 곳에서 세바가 장소로서, 그리고 이름으로서도 등장하지만, 비그리의 아들인 이 세바는 사무엘하 20 장에만 등장한다. 그는 이스라엘 다윗 왕국의 유다 부족이 부상하는 것을 시기하는, 반란군이자 말썽꾸러기로서 등장했다. 건달이나 범법자, 또는 악당이 좋은 번역이 될지도 모르지만, 사무엘하 20:1 은 무모한 바보라는 뜻의 히브리어 "벨리알"을 사용한다. 유대인 종말론 작가들은 후에 그 용어를 "사탄의 아들," 혹은 사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했다.

세바는 나팔을 불며 외쳤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삼하 20:1) 유다 사람들은 세바를 따르고 다윗 왕과 거리를 두었다. 세바의 목표는 베냐민 지파의 또 다른 왕 사울의 정신으로 이스라엘의 지도력을 부족에게 되돌리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다윗은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와 이 반란에 즉각 대응했고, 궁중 경비대가 열 명의 후궁들을 보호하도록 배치했다. 이 구절은 이러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을 때는 열 명의 후궁들이 왕궁을 돌보았다 (삼하 15:16). 앞서 반항아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삼하 16:21-22). 다윗은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면 후궁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후궁들을 지키라고 궁중 경비에게 명령했을까?

(압살롬에 의해 더럽혀진) 그들이 세바의 반란에 가담할까봐 다윗이 그 여인들을 보호했을까? 다윗의 행동은 후궁들에 대한 처벌의 하나였을까? 후궁은 가부장 계보 (창세기 22:24; 역대상 1:22)에 속하고 법적 권리 (출애굽기 21:7, 10-14)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법적 행위를 시행하고 있었는가? 아마도 다윗은 후궁들을 보호하는데 자비로운 행동을 개시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압살롬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은 후궁들을 다르게 이끌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을 것이다.

20:3 성경 주석가들은 3 절에 대한 해석에 곤혹스러워하는데, 그 후궁들을 보호한 사정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성경 본문은 간단히 다윗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명시한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생과부로 살았다. 아들과 동침한 여인과 다시 동침하는 행위는 가증한 근친상간죄에 해당되기 때문에(레 18:6-8), 다윗은 후궁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오히려 이들을 성밖으로 내어 쫓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이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들을 죽이거나 내어 쫓는 가혹한 형벌만은 삼가했던 것이다.

요압과 그의 충성도 (20:4-13)

20:4-13. 세바와 그의 반란 극이 한창인 가운데, 사무엘하 20 장은 요압과 아마사 사이의 긴장감을 보여준다. 요압은 다윗 왕국의 독실한 추종자로, 다윗 왕의 군대에 헌신적인 군인으로 살았다. 요압은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왕을 잘 섬겼었다. 요압이 충성을 다하였다는 것은 아마사가 압살롬을 지지했을 때에 다윗에 대한 명백한 불성실로 여기고 아마사를 계혹 주시하였다는 뜻이었다. 압살롬의 그림자와 그의 반란 사건들은 사무엘하 20 장의 사건들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요압은 아마사를 불러 세바의 추격을 돕게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사흘이라는 기간을 주어 유다 사람들을 모아 세바를 뒤쫓게 하였다. 요압은 아마사가 늑장을 부리자 아비새에게 사람을 불러모아 세바를 쫓게하였다. 요압이 아마사의 지연을 불성실함이나 불복종의 행위로 여겼는지, 아니면 아마사가 이전에 압살롬과 동맹한 사실이 반란의 위기에서 요압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다. 요압과 아비새는 각각 군사를 이끌고 세바를 수색하기 시작하였다. 요압은 곧 세바의 추격을 막 시작한 아마사와 마주쳤고, 요압과 아마사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요압은 우정의 인사로 볼 하나하나에 관습적으로 키스하는 아마사와 키스하는 시늉을 했다. 요압은 손을 뻗어 인사를 하는 동안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순식간에 칼을 빼들어 그의 배를 찔렀다. 아마사는 너무 늦게서야 뿔뿔히 겁을 알아챘고 그의 창자는 길바닥에 쏟아졌다. 여행자들은 피투성이가 된 그의 몸 옆을 지나쳐 갔고, 그 후 요압의 추적대는 아마사의 시체를 길가에서 치웠다. 세바에 대한 추적은 계속되었다. 투쟁과 전투의 여파 속에서 요압의 부하 중 한 명이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삼하 20:11) 하며 외쳤다. 그러자 모든 아마사의 부하들과 요압의 부하들이 함께 모여 세바를 계속 뒤쫓았다.

세바의 반란의 종국 (20:14-26)

20:14-26. 벤마아가 아벨 ("마아가 가문의 초원"으로 번역됨) 시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그 도시는 북쪽으로 멀리, 갈릴리 해 벧새다 북쪽에 있는 단 마을 근처, 그리고 그 근원이 되는 요르단 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비옥하고 풍부한 농지가 그 지역을 에워싸고 있었고, 성벽이 도시를 에워쌌다. 일단의 비그리인들 (베냐민 지파에서 온 가족과 부족 지도자들)이 세바를 추적했고, 그는 그 도시로 들어가 들어가 바리케이드를 쳤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벤마아가 아벨에 이르러 성벽에 이르는 토단을 쌓았다고 한 것을 볼때, 그 성읍은 언덕 위에 놓여있었다는 느낌이 든다.

요압의 부하들이 성벽을 부수고 들어가 세바를 사로잡기 위해 성벽을 강타하기 시작했다. 그때, 한 여자의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여인은 요압을 불러 자기와 이야기를 나누게 하고, 겨우 한 남자를 사로잡기 위해 성벽을 허물어 버리려 하는 그의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일을 자기 손에 맡길 것을 약속받았다.

사무엘하 20:14-22 에서 벤마아가 아벨에서 있었던 요압과 여자 사이의 대화를 읽어라. 그 여자는 세 가지를 언급했다: 1) 분쟁에서 듣는 것의 중요성 ("들어라!") 2) 분쟁을 해결하는 길 ("아벨에서 답을 구하라") 그리고 3) 해결책. 이 이야기에서 그 해법은 이스라엘에 대한 여인의 충실, 평화와 평화적인 해결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업에 대한 호소 등으로 간청했다.

요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삼켜 버리거나 (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내가 전혀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사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손을 들어 다윗에게 대항하였다. 이 한 사람을 넘겨주면, 나는 도시에서 철수할 것이다 (삼하 20: 20-21).

여자는 도시의 지도자들을 소집하고 그녀의 생각을 나누었다. 성읍 사람들이 세바를 참수하고 요압에게 그 머리를 건네 주었다. 요압은 승리의 나팔을 불었고, 그의 부하들은 성읍을 떠났다. 그들은 왕에게 돌아갔다. 마지막 몇 구절에는 다윗의 군대 내부의 주요 인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핵심 메시지

문제와 갈등은 종종 사악함 ("벨리알 Belial"), 무모한 어리석음, 그리고 불안과 혼란을 일으키는 말썽꾸러기들 때문에 발생한다. 다윗 왕국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를 뜻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은 자신의 왕국에 평화를 갈망하고 부여하셨다(학개 2:9). 하나님의 성 (시편 46:4)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였다(시편 85:8)

그러나 평화는 종종 성도의 최고의 믿음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부지런함도,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 중 가장 숭고한 사람까지도 따돌리곤 한다. 힘든 문제는 예기치 않게, 가장 놀라운 출처에서 온다. 세바는 다윗의 슬픔과 불행 (압살롬의 죽음)의 시기에, 인생의 힘든 도전 (반란과 불충)이 한창일 때 세상에 있는 어두운 악의 상징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의 왕국과 왕국의 원칙들 (마태복음 5-7 장, 산상 설교; 갈라디아서 5:22-23, 성령의 열매)에 충성을 기대한다. 반면 삶과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갈등은 실질적인 문제다. 빌립보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와 같은 바울 서신들은 교회 내부의 갈등과 까다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바울 자신도 육체에 가시 - 개인적인 문제 - 가 있었다. 바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의 인생에서 그 문제를 처리했는지 알 수 있다.

바울은 말했다.

...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7-10)

갈등과 문제는 삶의 현실이다. 문제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한다. 그래도 좋은 것은, 말썽꾸러기들이 주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 갈등, 말썽꾸러기들은 맞서야 한다. 사무엘하 20 장은 갈등에 대한 극단적인 구약성경의 이야기와 그 반응을 제공한다.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 18:1-19 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세 가지 지혜를 제공한다: 1)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한 봉사 정신으로 갈등에 접근하고, 2)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나 자매를 대적하는 성경적 단계를 따르고, 3) 기도한다.

갈등이나 문제, 말썽꾸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혼란을 처리하는 것이 해결과 평화를 찾는 최선의 방법이다.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학습 공과의 "소개" 란에 있는 이야기를 소리내어 읽는다. 질문하라, *자아성찰을 요구하는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지혜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다른 누군가가 당신이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나요? 이해가 부족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어디서 구했나요?* 대답할 시간을 허용하라. 다음에 이렇게 말하라, *오늘*

수업에서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대응할 때 경건한 지혜를 찾는 것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성경공부 인도

2. 수업 전에 마커보드에 다음 개요를 쓰거나 PowerPoint 슬라이드를 준비하라.

- I. 세바의 반란 (20:1-13)
- II.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 (20:14-22)
- III. 행정적 직분들 (20:23-26)

당신이 성경 말씀을 살펴볼 때, 이 개요를 참조하여 학급 반원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한 폭 넓은 맥락을 제공하라.

3. 왕정의 역사와 사무엘하 20 장의 이 부분까지 다윗이 맞닥뜨린 도전을 서술하는 강의를 준비한다. 이야기꾼의 스타일로 반원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불량배 세바가 다윗 왕국의 안정에 도전했다는 것을 극적으로 일깨워준다.

4. 고대 영토의 지도를 미리 확보하거나 온라인 그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표시)을 사용한다. 본문 이야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위치를 보여라. 1) 세바와 다윗이 살았던 곳, 2) 요압과 아마사의 만남이 있었던 곳, 3) 아마사와 아비새가 군인들을 모집한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곳, 4) 다윗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세바를 초기에 공략하여 북쪽 지파들을 북쪽으로 도망가서, 벤마아의 아벨로 후퇴하게 하였는지. 지도상의 움직임을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라.

5. 사무엘하 20:14-22 를 소리내어 읽는다. 질문하라, *이 여인의 삶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누구였습니까? 당신은 이와 같은 여성을 아십니까? 당신이 요압의 처지였으면 성벽에서 부르는 여인의 말을 들었을까요? 왜 그런가요? 혹은 왜 그렇지 않았을까요?* 대답할 시간을 주라.

적용 격려

6. 인생에서 지혜가 필요했던 때에 예상치 않은 곳에서 그것을 발견한 예를 미리 준비한다. 특히 나중에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 반원들과 나누라.

반원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라고 하라. 반원들 가운데 자기의 경험을 나누도록 초대할.

7. *학습 공과*의 "질문" 섹션을 검토한다. 반원과 함께 나누라.

8. 반원 중 한 사람에게 마침기도를 요청하고, 기도에 지혜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청하라.

[끝]

제 13 과	심판과 희망
핵심본문 삼하 24 장 배경 삼하 24 장	학습주제 다윗의 죄악된 인구조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향후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신성한 땅의 구매가 이루어진다. 탐구질문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나? 학습목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과 희망을 찾는다.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사무엘하 24 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인구조사, 한 선지자의 메시지, 다윗의 죄의 고백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역대상 21 장 또한 사무엘하 24 장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두 개의 기사에는 몇가지 상이점들이 있다. 비록 각각의 이야기가 다른 세부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고유한 내용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목적과 의도는 다르지 않다. 또한 인구조사를 행한 다윗 왕의 죄의 초점을 맞추는 것과 화목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서 하나님의 자비 또한 변형시키지 않는다.

인구조사에 대한 생각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보아라. 왜 이 경우에는 인구조사가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과 진정한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의 힘, 그리고 영적 인도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에 집중해 보자. 사무엘하 24 장의 배경 안에서 시편에서의 다윗의 반복되는 울림에 귀 기울여 보아라: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시 6:9), 그리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 51:1)

하나님의 자비는 두가지의 주요한 구약의 개념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loving-kindness, 히브리어로는 ‘hesed’)인데, 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식이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테마이다. ‘hesed’는 구약에 총 148 번 사용되었는데, 그 중 약 3분의 2가 시편에 나타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들(복수, *racham*)즉 하나님의 온화한 자비들(이하, ‘하나님의 긍휼’로 번역)¹,이란 개념이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나약하고 비참하고 무력한 피조물들로 바라보고 계신다. 그렇게 인간들 각자는(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한다. 인간들은 또한 그들의 삶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들의 삶을 만지시는 그의 선하심을 필요로 한다. 시편 119 편 77 절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compassion: *racham*, tender mercies)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인구조사와 다윗의 죄에 대한 기사는 일반적인 배경으로서 구약의 *hesed*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지만, 특별히 다윗의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른 아침 풀잎 위에 떨어지는 이슬처럼 다윗의 영혼 위에 내리는—다윗의 고백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 그의 영을 새롭고 신선하게 하기 위하여—하나님의 긍휼로 행하여 짐을 보게 된다.

본문해석

인구조사? (24:1-9)

24:1-2. 이 부분은 해석에 있어서 명료함이 부족하지만, 온전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예를들면, 사무엘하 24 장 1 절에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화가 났고 인구조사를 하도록 다윗을 부추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부추기다(*incite*)”라는 말은 “꺾다 (*seduce*)”, “콕 찌르다(*prick*)”, “움직이게 하다(*move*)”, “설득하다(*persuade*)”, 혹은 “(감정을) 자극하다 (*stir up*)”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자극해서 그가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셨을까?

역대상 21 장 1 절에서, 우리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는 것에 주목한다. 어떻게 이런 극명한 차이점을 조화시킬

¹ God’s tender mercies, 복수의 형태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온화한 자비들로 번역하였으나, 이후에는 표현의 자연스러움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로 표기하였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탄이 욕을 시험 또는 유혹하도록 허락하는 구절을 생각해 보아라. (욥 1:6-12; 2:1-7).

해석에 있어서의 도전은 계속된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행한 것이 왜 죄가 되었을까? -요압은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주저했고 (삼하 24:3; 역대상 21:3), 인구조사가 시행대자마자 다윗은 그것이 죄라는 것은 인지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2 Sam. 24:10).

인구조사는 구약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고 항상 죄가 되지는 않았다. 인구조사는 각자의 머리를 드는 것 혹은 군대에 갈 수 있는 스무 살과 그보다 나이 많은 남자의 수를 세는 것의 내용을 포함했다. 역사적으로는 인구조사는 머리 수를 세는 것과 세금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2 년째 되는 해에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민 1:47-54). 또 다른 인구조사는 광야 생활 말미에 모압평야 내 싯딤에서 실시되었다 (민 26).

이전의 인구조사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 다윗의 인구조사는 죄가 되었을까? 이에 대해 성경은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는다. 유대인 역사학자 조세프스 (Josephus)는 유대 고대사로 알려져 있는 그의 작품에서 다윗의 죄는 인구조사와 관련하여 모세의 지시(출 30:11-60)를 무시했고 여호와께 바치는 재물로서 반 세겔이 필요했던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학자들은 인구조사를 행한 다윗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는—“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 (창 22:17)”—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머리 수를 세는 어리석음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24:3. 다윗에 대한 요압의 최초 반응은 왜 인구조사가 죄가 되는지 보다 현실적인 답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삼하 24:3). 본질적으로 요압은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가 얼마나 큰지 이미 알고 계신데 왜 당신은 세를 과시하려 하고 당신의 왕국을 자랑하고자 합니까?”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군인들을 공급해 주셨고 강한 군사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왜 지금 그것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요압의 반응과 다윗의 인구조사를 행한 자신의 죄에 대한 즉각적인 고백은 그 죄가 자신의 힘과 강함과 위대함, 그리고 그의 왕국에 대한 자랑에 중심을 두고 있음을 가리킨다.

24:4-9. 요압은 마지못해서 인구조사할 지역을 답사하고 이스라엘 남자의 머리 수를 계수함으로써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인구조사관들은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칼을 빼는 담대한

백성의 숫자가 130 만명 (유다에서 50 만명, 이스라엘에서 80 만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구조사를 끝마치기까지 아홉 달 스무 날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죄의 고백과 심판 (24:10-17)

24:10. 요압이 백성의 수와 인구조사가 끝났음을 보고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유죄를 선고하고 왕은 그의 죄를 여호와께 고백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가 선을 넘기를 바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어 버리는 마음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표적을 놓치게 된다. 이 경우에서 다윗의 죄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과 자기 중심적 교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들을 압도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한 것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다윗은 그의 죄를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삼하 24:10).”

다윗은 개인적 죄의 심각성 (“greatly”), 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Lord”), 그의 죄를 없애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take away”),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순종 (“your servant”), 그리고 죄를 범한 그의 어리석음을 그의 고백에서 인정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란 다윗의 말은 그의 죄책감을 뛰어넘어 그가 경험한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또한 하나님의 죄사함이 얼마나 긴급한 지를 나타내고 있다. 다윗의 말은 또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의 언약에 표현된 그의 자비 (*hesed*)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삶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4:11-17.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또한 다윗의 선견자이자 조연자인 갓은 다윗 왕에게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린다. 그러나 갓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다윗이 심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린다. 다윗에게는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3 년간의 기근, 두 번째는 그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 마지막 세 번째는 3 일동안 땅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란 것이었다. 다윗은 주저없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 (*racham*)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삼하 24:14).” 다윗은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따사로운 긍휼이 사람들에게 대한 징벌에 비해 더 따사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긍휼이 너무나 많으셔서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들 각자를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이제 한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기 위해 온다. 전염병이 3 일동안 계속되었다. 여기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슬픔에 주목해 보라 (삼하 24:16). 또한 다윗이 그의 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잘못으로 인해 그의 백성들이 경험한 심판에 대해 슬퍼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본성을 드러내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라 (삼하 24:17). 하나님의 공효는 다윗을 움직였고, 그것은 곧 다윗의 “양무리”에 대한 공효의 말들로 이어졌다. 하나님은 그분의 양무리를 돌봄에 있어서 천사에게 재앙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다윗은 그의 양무리를 돌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살려주실 것을 요청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재단 (24:18-25)

24:18-25. 사무엘상은 한나가 그녀의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으로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어서 재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28). 사무엘하는 다윗 왕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 다윗은 재단을 쌓으라는 선지자 갓을 통해 주어진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다.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가서 그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 위에 재단을 쌓게 해달라 요청한다. 아라우나는 그 땅을 값없이 제공하려 했으나, 다윗은 값을 주고 그 땅을 사겠다고 주장했다.

24 절의 다윗의 말은 그가 재단 쌓는 일을 매우 진지하고 중대하게 생각하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삼하 24:24; 창세기 23:3-15 에 기술된 아브라함의 에브론과의 대화와 같은 유사한 사례를 보라).”

다윗은 은 오십 세겔로 그 땅과 소를 사고, 이는 재앙을 통해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재물로 바쳤던 곳과 똑같은 장소이다 (창 22:1). 이 타작마당은 나중에 솔로몬왕에 의해 지어진 성전의 터가 된다 (역대상 22:1).

예배는 그 구성요서로서 재물, 예배자, 그리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포함한다.

핵심의미

사무엘하 24 장의 중심주제는 죄의 고백의 중요성과 힘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음을 명심해야만 한다. 죄의 고백은 하나님의 공효와 자비를 포함한 그분의 본성과 신실하심에 호소한다. 예레미야애가 3:22-23 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데, 이때 두가지 영적 측면에서 그의 긍휼을 필요로 한다. 첫 번째 측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롬 3:23)”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죄의 고백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요한일서 1:9 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란 것을 배워 알고 있다.

하나님의 자비의 우산 아래에서 또한 그의 긍휼의 능력 안에서 행한 죄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져다 주고 개인의 삶을 새롭게 한다. 다윗의 고백은 그가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분 안에서 회복과 희망을 찾는 초석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매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학습 공과*의 서론 부분에 있는 오프닝 스토리를 크게 읽어라. 다음과 같이 말하라. “*폴에 대한 평판에 어떤 변화가 일어 났는가? 그것이 폴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어떻게 그 변화가 폴 주변과 학교 분위기에 영향을 주었는가?*” 반원들이 토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라.

성경 공부 인도

2. 수업시간 전에 다음의 개요를 칠판 혹은 포스터 보드 위에 적거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준비하라.

- I.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행하다 (24:1-9)
- II. 다윗이 그의 죄의 결과에 직면하다 (24:10-17).
- III. 다윗이 재단을 쌓다 (24:18-25).

당신이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반원들에게 오늘 이야기의 보다 넓은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위의 개요를 언급하라.

3. 1 절부터 9 절까지의 성경구절을 크게 읽고, 다음과 같이 말하라. *“다윗은 그의 군사력을 주장하기 위한 기회로 인구조사를 실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윗과 같이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에게 잘못된 안전감을 주는 (보통 빠른 결정과 충동을 야기하는) 무언가를 쫓으며 우리의 힘으로 행동한다. *“당신이 안전감을 쫓았기 때문에 당신 삶에서 자신만의 힘으로 행동했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무슨 일이 생겼었는가?”* 라고 질문하라. 질문에 대해 함께 논의하도록 하라.
4. 빌립보서 4:6-7 과 에베소서 6:12 을 크게 읽어라. 반원들이 만일 다윗이 하나님과 상의를 했었다면 그가 군사적 필요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은 지에 대해 토의하도록 하라.
5. 수업 전에 한 면에는 시편 51 이 다른 한 면에는 삼하 24:10-25 이 기입된 종이들을 인쇄하라. (www.baptistwaypress.org 에 있는 오늘 공과 ‘Teaching Resource Items’에서 이 항목들을 찾을 수 있다). 각각의 반원들에게 종이 한장을 나눠주어라. 양면에 있는 성경 본문들은 다윗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라. 그 다음 당신이 그 본문들을 읽을 때 반원들이 함께 따라 크게 읽을 것을 요청한다. 다 읽으면 반원들에게 그 두 개 본문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주목할 것을 요청하라. *“이러한 유사점들과 차이점들이 다윗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라고 질문 후 답할 시간을 줘라.

적용 격려

6.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겸손함은 보통 어떻게 회복으로 이끄는가? 어떻게 예수님은 겸손을 그 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 우리 주변 세상에서 서로에게 어떻게 모범을 보일 수 있을까?”* 토의할 시간을 줘라.
7. 스터디 가이드의 질문 부분을 다시 살펴 본 후 반원들이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라.

8. 기도로 마무리 하기 전에 시편 51:10-13 을 크게 읽고 잠깐 동안 묵상할 시간을 주어라.

[끝]

부활절 학습	가서 말하라
핵심본문 마 28 배경 마 28	학습주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그의 추종자들을 모든 민족의 제자들로 만드셨다. 탐구질문 나는 어떻게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만들고 있는가? 학습목표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헌신한다.

성경주해

배경 이해

마태복음 28 장의 배경은 세 개의 부문으로 나뉜다: 첫째, 십자가 처형 이후의 후유증, 정적, 그리고 이를 둘러싼 어두움. 둘째,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의 두려움과 흩어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죽음, 장사 지냄과 부활과 관련하여 그 지역 사람들간에 오고 가는 대화 속에 나타난 혼돈의 지역정서, 그리고 갈릴리를 포함한 여러 주변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나타나심이다.

여기서 두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첫째,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물론 그 대답은 예수의 운명이 그들에게도 곧 닥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쳐 그들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마 26:56). 두번째 의문점은 “제자란 무엇인가?”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마 5-7).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 (마 8:21-27). 제자들은 또한 예수님의 지혜, 도, 그리고 사역을 배우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들로 자리매김한다. 한 명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한다.

이 과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세가지 대조를 보여준다: 1)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억제하고 파괴시키려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두려움과 예수님의 무덤에 온 여인들에 대한 “두려워 하지

말라”는 천사의 메시지; 2) 로마 당국의 파워와 다신 사신 그리스도의 파워에 대한 메시지; 3) 금요일의 어두움과 일요일 아침의 부활의 빛.

마태복음의 기초를 이루는 주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 마태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했고 (2:11);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경배했고 (8:2); 딸이 아픈 한 관리가 예수님께 절하고 경배했다 (9:18);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배 안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경배했다 (14:33); 그리고 두명의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 (28:9; 28:17).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시작하고 끝난다. 헬라어에 표현되어 있듯이, 경배의 행위는 경의와 숭배, 겸손, 그리고 왕에 대한 경외를 드리며 경외하는 대상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포함한다 (계 4:11).

본문 해석

안식일 이후 (28:1-4)

28:1. “안식일 이후”는 예수님이 금요일에 죽으신 이후에 아침 혹은 새벽을 의미한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쉼, 기도,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 시부터 토요일 저녁 6 시경까지인데, 이 때는 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하고 해가 질 녘이다.

마태복음은 24 시간의 시간으로 안식일에 대해 말하고 그 다음 날 (일요일)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 날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유대 전통의 장례를 위해 향품을 가져온 날이다.

28:2-3. 마태복음의 저자는 부활의 아침에 지진이 났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땅이 흔들렸고, 무덤 입구에 있던 돌은 굴러져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떠나셨다. 부활은 하늘과 땅을 흔들었고, 또한 그것은 지진이 우리의 감각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 우리를 흔들어야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고쳐 되어야 한다. 흰 옷을 입은 한 천사가 무덤 돌 위에 앉아 있었고, 그의 형상은 번개같이 빛나고 있었다.

28:4.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충격적 사실, 지진, 그리고 천사의 등장은 무덤을 경비하며 서있던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얼어붙어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생명을

않게 되리라는 충격과 두려움이 합쳐져 생긴 것이다. 로마군인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패와 소홀함이 있을 경우 종종 심한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천사의 메시지 (28:5-10)

28:5-7. 천사는 여자들을 진정시키고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전한다. 그 천사의 “와서 보라”는 초청은 그 두 여인이 그들 스스로 텅 빈 무덤을 보도록 하였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천사의 선언을 주목하라. 천사의 말은 놀라운 소식이었을 것이 틀림없으나, 번개같고 눈과 같이 하얀 옷을 입은 천사의 형상은 그 흥분되는 소식의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더해준다.

28:8-10. 마태복음은 그 여인들의 반응의 중심, 즉 격한 기쁨에 동반된 순종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경배했던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메시지에 대해 신실한 순종으로 반응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자들은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에서 지속적인 희망의 원천으로서의 기쁨을 경험한다. 잠시 시간을 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것에 관한 메시지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마태의 대조를 감지해 보아라.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절망은 희망에게 굴복하고, 십자가에서 파괴된 목적은 부활이 가져온 개인적이 기쁨의 회복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히 12:1-3).

만일 천사의 출현, 지진의 발생, 빈 무덤, 그리고 너무 놀라서 할말을 잃은 로마군사들의 충격의 강도가 크지 않았다면, 그 여인들은 단지 제자들에게 그 좋은 소식만을 알리기 위해 무덤을 떠났을 것이다. 그 여인들이 무덤으로부터 서둘러 떠나자, 그들은 길 위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은 일찍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했던 “무서워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반복한다. 그 다음 다음과 같은 말을 더하신다. “가서 내 형제들 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마태복음 28:10 은 “형제들”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연대순으로 기록한다. 종종 신약에서 이 용어는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 사이의 독특한 연대를 나타내는데, 이는 가까운 가족의 특별한 관계, 그리고 함께 나누는 친교의 기쁨과 같은 것이다. “형제들”이라는 단어는 애정을 나타내는 용어와 희망의 메시지 둘 다의 의미로서 나타나는데, 이 희망의 메시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을 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 경비병들과 정치인들 (28:11-15)

28:11. 두려움에 의해 얼어붙었던 로마 병사 중 몇 명은 산헤드린 공의회로 알려진 대제사장들과 장로 협의체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갔다. 이에 관한 내용이 11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매우 흥미롭다: 1) 그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의 처분을 앞두고 있었고,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군인들의 안전을 부탁하였기 때문에 산헤드린에 호소했던 것이다 (27:60-65). 2) 그 군인들은 그들이 부여 받은 임무수행에 과오로 인하여 그들의 목숨이 빌라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다.

28:12-15. 로마병사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의 부활을 믿었을까? 그 대답은 여러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그 군인들이 예수와 천사의 메시지에 대해 전한 내용의 진실은 산헤드린으로 하여금 그 사건의 진실을 숨기고 음모를 꾸미도록 가속화 시켰다. 그들은 그 로마 군인들 (선전과 전쟁의 전략 기술에 대해 고도로 훈련을 받은)에게 가짜 뉴스를 보고하는 대가로 많은 양의 은화를 뇌물을 주었다. 그 군인들은 그 뇌물을 받았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그 가짜 뉴스를 순환시키는 일에 착수했다.

순환이라는 개념은 그 소식이 화염 혹은 불처럼 매우 빠르게 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복음 9:31 에서 맹인들을 치료하는 내용을 기술하면서 똑같은 단어(퍼뜨리다, "circulated")를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의 치유에 관한 명성을 퍼뜨렸다. 여기서 마태는 그 소식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대한 가짜 뉴스였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 단어를 사용했다.

유대와 로마 정치, 뇌물, 그리고 음모 등은 모두 뒤섞여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마 26:14-50), 예수님에 대한 유대와 로마의 법적 재판, 그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파괴하고 왜곡하는 시도 등, 이들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에 관여되어 있다 (마 26-28). 그러나 그 가짜 뉴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증거 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가 이를 기록하고 있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15:3-8 에서 5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상대명령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 (28:16-20)

28:16-17. 예수님은 산 위에서 그의 열한 제자들을 만나셨다. 그들의 반응들의 대조에 주목해 보라. 어떤 제자들은 예수의 발아래 엎드려 경외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경배했다. 다른 제자들은 의심을 하며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서 있었다. 어떤 제자들은 단순히 믿음으로

반응했다. 다른 이들은 의심의 반응을 보였는데, 그들의 마음은 부활의 기적이라고 믿는 마음과 가짜 뉴스라고 치부하며 불신하는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28:18-19. 예수님은 권위를 갖고 말씀을 하셨다. 여기서 “권위”라는 개념은 자유롭게 하는 힘의 통치를 가리킨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권위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통해 선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하고 있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부터 온 그 권위의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세가지를 명령한다. 1) 너의 삶에서 보통의 패턴으로 가서 혹은 “가는 동안”, 2) 모든 민족 혹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그리로 3) 그들에게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baptize, Greek *baptize, immerse*).

28:20.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은 혼자가 아닐 것을 상기시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핵심이미

21 세기의 교회가 마태복음 28 장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지혜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따르고 부활의 기쁨을 경험해야만 한다. 마태복음 28 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결과는 몹시 놀라울 만하다. 희망이 없는 세상에 희망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 상황을 뛰어 넘는 기쁨, 그리고 어둠을 무찌르는 빛이 바로 그 결과이다.

혼돈과 가짜 뉴스, 혼란, 그리고 전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개인의 평강, 진실, 그리고 희망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것들은 인간의 마음 속에 닿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각을 뛰어 넘고 세상을 만져준다 (빌 4:7).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주셨다: 그는 다시 사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메시지를 긍휼의 마음으로 전하도록 도전하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나아간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전해 주신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긍휼과 사랑의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용하는 것이다. 교회의 책임 중 하나가 사람들을 돕고 가르치고 성장시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양육하여 제자로 삼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의 것들을 반드시 실천 해야 한다.

-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삶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알려라.
- 그리스도의 말씀과 도를 가르쳐라.
- 그리스도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라.
- 고난의 시험 속에서 전략적, 실질적, 그리고 생존 기술을 군인에게 훈련시키는 군대 지휘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라.
- 운동선수를 훈련시키는 코치로서 가르쳐라.
- 농장주가 아이가 땅을 갈고 씨를 심고 수확물을 추수하도록 지도하듯이 개인 교사로서 가르쳐라.
- 그들이 주안에서 주의 능력의 파워 안에서 강해지게 하라.
- 그들이 성경을 암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
- 그들이 그들 내면에 있는 희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항상 준비되어 있도록 가르쳐라.

영국 목사이자, 성직자, 그리고 시인인 제라드 멘리 홉킨스(Gerard Manley Hopkins, 1844-1889)는 그의 시에서 다음과 같은 멋진 시구를 썼다. “그가 우리 안에서 부활이 되게 하소서,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이 되소서...”²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어둠 속에서 그의 빛을 밝힐 수 있고, 제자를 삼음으로써 그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수업시간 전,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종이 위의 기술된 사실에서 당신의 매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삶의 현실이 되었던 때의 간증을 준비하라. 당신의 확고한 믿음을 더욱 굳게 한 진실과 성경 말씀에 유념하라 (당신 대신 자원자를 활용해도 좋다).

² <https://www.poetryfoundation.org/poems/44403/the-wreck-of-the-deutschland> (Accessed 11/11/18).

2. 다음 증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세기에 걸쳐,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었다. 마태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빈 무덤을 기독교의 중심으로 놓는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믿음이 삶에 당신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결정해 줄 수 없다."*

성경공부 인도

3. 수업시간 전에 다음의 개요를 칠판 혹은 포스터 보드 위에 적거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준비하라.

- I. 빈 무덤에 온 여인들 (마 28:1-10)
- II. 은폐된 이야기 (28:11-15)
- III. 지상 대명령 (28:16-20)

이 성경 구절을 따라 가면서, 반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보다 넓은 시각으로 문맥을 파악하도록 이 개요를 언급하라.

슬라이드를 준비하라

4. 마태복음 28:1-10 를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만일 당신이 무덤에 있는 여인들 중 하나였다면, 당신은 부활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의 이익을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에 더해서 갈릴리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낸 것의 이익은 무엇이었습니까?* 반원들이 예루살렘에는 없었고 갈릴리에는 있었던 것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라 (갈릴리에는 복음의 소식을 모든 나라에 전하는 일에 호의적이었던 비유대인들과 비유대마음들이 많았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많았다). 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라.

5. 마태복음 28:11-15 까지 크게 읽은 후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여러분들 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꾸며진 이야기를 듣거나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할 시간을 주라.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부활을 반박하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부활을 확증하는 것으로서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 부가적인 정보는 스타디 가이드의 사이드바에 있는 부활의 사실들"에서 얻을 수 있다.

6. 수업시작 전에 당신의 교회, 단체, 또는 협회에 당신의 반원들에게 특별한 흥미를 주는 선교사들 혹은 복음전도에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 보라. 이러한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 중 몇 가지를 반원들과 공유하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당신들 중 선교와 복음 전도에 관하여 개인적인 경험을 해 본 분이 있습니까?* 다른 반원들과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주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우리 반원들은 어떻게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는데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적용 격려

5. 스타디 가이드에 있는 질문 섹션에 있는 질문들을 다시 보아라. 반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라.

6. 반원들이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과 그것을 전하는 기쁨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동안 침묵의 시간을 갖으며 이번 시간을 마쳐라. 기도로 수업을 마쳐라.

¹ Lyrics by Fanny Jane Crosby (1820-1915).

² (<https://www.webmd.com/parenting/features/6-ways-your-teen-manipulates-you#1>) (Accessed 11/11/18).